

# “한국어능력시험”과 일본 “<한글>능력검정시험” 초급 문제에 대한 비교 연구

스가이 요시노리  
(일본 동경외국어대학교)

## 1. 序論

### 1.1 本稿의 目的과 研究 對象

본고는 “한국어능력시험”(KPT/TOPIK, 이하 ‘TOPIK’)<sup>1)</sup>과 일본 “<한글>능력검정시험”(이하 ‘검정시험’)<sup>2)</sup>을 대상으로 이들 한국어 능력 평가 시험 문제를 분석하고 바람직한 한국어 능력 평가의 모습,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본고는 각 능력 평가에서 ‘초급’으로 설정된 등급에 대해 최근 3회 시험을 검토 대상으로 한다. TOPIK은 표현 영역(‘어휘·문법’, ‘쓰기’)과 이해 영역(‘읽기’, ‘듣기’) 중 표현 영역을 대상으로 한다. 또 검정시험은 ‘筆記’와 ‘聞きとり’(듣기) 문제 중 ‘筆記’ 문제를 대상으로 한다.

#### (1) 연구 대상

TOPIK: 제7회(2003년도 실시), 제8회(2004년도), 제9회(2005년도).  
각 1급·2급 문제 중 표현 영역(‘어휘·문법’, ‘쓰기’)만 대상으로 함.  
문항 총수: 360(어휘·문법, 쓰기 각 30개씩)

검정시험: 제24회(2005년도 봄 실시), 제25회(2005년도 가을), 제26회(2006년도 봄).  
24회·25회는 5급·4급·3급, 26회는 5급·4급 문제 중 ‘筆記’ 영역만 대상으로 함.  
문항 총수: 329(24회/25회 5급: 43, 4급: 45, 3급: 39. 26회 5급: 41, 4급: 34)

### 1.2 先行研究

한국, 일본에서 한국어교육과 관련된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한국어 능력 평가에 대한 논의도 많이 이루어져 왔다.<sup>3)</sup> 그 중에서도 TOPIK 초급 문제를 연구 대상으로 어휘와 문법의 분포를 정리

- 1) 한국어능력시험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관리하여 각국 주재대사관 등이 시행하는 시험으로서 1·2급(초급), 3·4급(중급), 5·6급(고급)과 같은 여섯 단계로 평가하는 시험이다.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http://topik.or.kr/>)를 참조. 2006년도에 시행될 제10회 시험부터 응시자는 각 급마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초·중·고급으로 지원하여 점수에 따라 1·2급, 3·4급, 5·6급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등급 부여 방식이 바뀌었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6, 김정숙·최은규·김유정 2005a).
- 2) <한글>능력검정시험은 일본 ハングル能力検定協会(한글 능력 검정협회)가 주관·시행하는 시험으로서 2005년 가을에 실시된 25회 시험까지는 5·4·3급(초급), 준2·2급(중급), 준1·1급(고급)의 일곱 단계로 등급이 나누어져 있었다. 2006년 6월에 실시된 26회 시험부터는 준1급을 없애고 5·4급(초급), 3·준2급(중급), 2·1급(고급)의 여섯 단계로 수준이 개정되었다.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http://www.hangul.or.jp/>)에서 얻을 수 있다.
- 3) 최은규(2005:370-375)에서 한국어 능력 평가와 관련된 논고를 연도별로 정리한 바가 있다. 본고에서 언급되지 않은 논고에 대해서는 최은규(2005)를 참조하기 바란다. TOPIK에 관한 개요, 운영 현황, 과제 등에 대해서는 김광해(2002), 김유정(2005), 민병곤(2005) 등을 참조. 또 검정시험에 대해서는 Yutani(2002)에서 한국어로 소개된 바가 있고, 현황에 대해서는 김혜진(2005)도 참조할 수 있다.

한 것으로 강은아(2002), 고우리(2004)를 들 수 있다. 각각 TOPIK 제1회~제4회, 제3회~제6회 문제에 나타난 어휘, 문법 항목의 빈도를 정리한 것이다. 고우리(2004)는 더 나아가 한국 국내 교육기관에서 사용되고 있는 한국어 교재와의 대응 양상도 검토하였다. 두 연구 모두 각 문제에 나타난 어휘 빈도를 표로 정리한 바가 있어 연구 자료로서 가치가 있다.

한편 이희경(2005)는 제7회 TOPIK과 제23회 검정시험의 초급 수준을 대상으로 그 문항에 나타난 어휘 등을 비교하였다. 이희경(2005)는 각 시험의 출제 기준이나 특징을 제시하고는 있으나 본격적인 비교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각 시험에 나타난 어휘나 문법 항목을 제시하는 데 그쳤다. 또 1회분만의 시험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각 항목들의 출현 양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렵다. 강은아(2002), 고우리(2004)에서도 언급되었듯이 각 항목의 출제 빈도는 매회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 선행연구는 각 능력 평가의 문항과 그 유형, 문제에 나타난 문법적인 항목들을 분석함으로써 능력 평가 개선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려고 하는 것이었다. 또한 두 능력 평가를 대조한 이희경(2005)는 각각의 특징을 개략적으로 제시하여 전체적인 특징을 논의한 것이었다. 본고에서는 이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항목이 출제되었는지 분석할 뿐 아니라 그러한 분석을 통해 두 능력 평가의 차이를 구조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그 차이를 낳는 근본적인 원인까지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 2. 韓國語 能力 評價와 관련된 日本 國內의 狀況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일본 국내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 특히 대학에서 한국어를 학습하는 학생은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국제문화포럼(2005:33, 49)에 의하면 2003년도에 일본 국내에서 한국어 강좌를 개설한 4년제 대학은 335개 대학으로 1995년도의 143개 대학과 비교할 때 약 2.3배이다. 2003년도 수강자 수는 약 4만 명 내지 5만 명 정도로 추정이 된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한국어 능력 평가의 수준에 맞추어 학점을 인정해 주는 대학이 있다. 국제문화포럼(2005:68-69)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회답한 전체 학교 158개 대학 중 TOPIK 합격 수준에 따라 학점을 인정한다는 대학은 15개 대학으로 9.5%, 검정시험의 경우는 18개 대학으로 11.4%였다. 일부 학교에서는 한 쪽 시험만을 학점으로 인정한다는 경우도 있다. 각 학교에서의 상황을 국제문화포럼(2005:68-69)에서 제시한 것은 다음과 같다.

<표1a> 일본 내 각 대학에서의 검정시험 학점 인정 상황4)

	5급	4급	3급	준2급	2급	준1급	1급
A대학	0	2	2	4	6	8	10
B대학	0	0	2	2	2	2	2
C대학	2	4	6	6	8		
D대학	0	0	8	8	8	8	8
E대학	0	2	2				

4) <표1a, b>의 각 대학(A, B, C, ...)은 같은 학교를 가리키며 숫자는 학점수를 제시한 것이다. ( )는 중급 수강생의 경우를 표시한 것이다.

	5급	4급	3급	준2급	2급	준1급	1급
F대학	0	2(0)	4(2)	4	4	4	4
G대학	0	4	8	10	12	n/a	16
H대학	0	0	2	2			
I대학	0	0	2	2	2	2	2
J대학	0	2	4	6	6	6	6

<표1b> 일본 내 각 대학에서의 TOPIK 학점 인정 상황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A대학	0	2	2	4	6	8
B대학	0	2	2	2	2	2
C대학	(인정한다)					
D대학	0	0	8	8	8	8
E대학	0	0	2	2		
F대학	0(2)	4(2)	4	4	4	4
H대학	0	0	2	2		
I대학	0	0	2	2	2	2
K대학	(현재 신청하고 있음)					
L대학	2	4	6	8	10	12

가장 낮은 레벨인 검정시험 5급과 TOPIK 1급은 합격해도 학점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한 검정시험의 4급, TOPIK의 2급에 대해서도 학점을 인정하지 않는 학교가 있다.

2004년도 가을에 시행된 제23회 검정시험에서 한글능력검정협회가 응시자에게 실시한 설문조사의 결과가 김혜진(2005)에 실려 있다. 응시자 11,186명 중 7,907명이 회답한 것이다. 그 결과, 직업별 응시자수는 대학생이 2,074명(전체 응시자의 26.23%), 그 다음으로 회사원이 1,946명(24.61%), 고등학생 이하 957명(12.10%) 등으로 응시자 중 대학생이 가장 많다(김혜진, 2005:473). 이러한 결과로 볼 때, 대학생들이 검정시험에 대해 아주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5)</sup>

참고로 TOPIK에 대해서는 일본에서 2004년도 제8회 시험에 응시한 수험자를 직업별로 정리하면 총 6,176명 중 회사원 2,380명, 학생 1,246명, 주부 767명, 공무원 711명, 자영업 159명, 기타 913명으로 학생이 두 번째로 많았다(민병곤, 2005:145).

### 3. 各 試驗의 出題 基準 比較

검정시험은 2002년도에 “学習の手引き(학습 길잡이, 이하 ‘길잡이’)”가 출판되면서 그 출제 기준, 각 급에서 출제되는 어휘 등이 처음으로 공개되었다. 이후 그 내용에 따라서 각 급 문제가 작성되었다. 한편 TOPIK에 관해서는 ‘길잡이’와 같이 출제 내용을 망라한 책이 출판되어 있지 않다.

5) 이 설문조사에서는 “응시한 목적”에 대해서도 조사되었으나 김혜진(2005:475)에 제시된 항목 중에는 학점 관련 항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처음부터 조사항목으로 안 들어간 것인지 단지 제시를 안 한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

검정시험은 2006년 6월 4일에 시행된 제26회 시험부터 시험 내용과 출제 기준이 개정되었다. 6) 2006년 3월에 출판된 “합격 도우미(이하 ‘도우미’)”로 그 내용을 알 수 있는데 여기서 ‘길잡이’와 비교하여 검정시험 초급의 출제 기준을 번역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2> 검정시험1과 2에서의 초급 출제 기준(원문은 일본어)

	검정시험1: 2005년 25회 이전	검정시험2: 2006년 26회
5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시간 정도 학습한 수준.</li> <li>-한글을 배우기 시작한 초보 단계. 짧은 문장을 읽고, 쓰고, 들을 수 있다.</li> <li>-1부터 10까지 셀 수 있다.</li> <li>-간단한 인사를 할 수 있다.</li> <li>-약 300개 단어와 16개 인사말을 ‘길잡이’에서 제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초급 전반 단계. 60분 수업을 40시간 수강한 수준.</li> <li>-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초보 단계. 한글 모음과 자음을 정확히 구별할 수 있고 약 450개 단어와 한정된 文型으로 만들어진 문장을 읽거나 들을 수 있다.</li> <li>-인사말이나 간단한 질문을 수행할 수 있고 그러한 질문에 대답할 수 있다.</li> <li>-자기 자신과 가족의 이름, 특징,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등 私的인 화제, 日課나 예정, 음식 등 주변의 사실에 대해 전달할 수 있다.</li> </ul>
4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50~60시간 정도 학습한 수준.</li> <li>-기초적인 한국어를 읽고, 쓰고, 들을 수 있다.</li> <li>-초보적인 단어로 간단한 인사나 소개를 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사전을 사용할 수 있다.</li> <li>-기초적인 단어로 짧은 문장을 쓸 수 있다.</li> <li>-약 600개 단어와 34개 인사말을 ‘길잡이’에서 제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초급 후반 단계. 60분 수업을 80시간 수강한 수준.</li> <li>-비교적으로 빈도가 높은 약 950개 단어와 文型으로 만들어진 문장을 읽거나 들을 수 있다.</li> <li>-관용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다양한 장면에서 인사를 할 수 있고 사실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식당에서 주문하거나 물건을 살 때 “定型的인” 의뢰를 할 수 있다.</li> <li>-사전을 찾을 수 있다. 자주 쓰이는 단어들의 조합(連語)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다.</li> <li>-짧은 문장을 읽고 내용을 파악할 수 있고, 메모나 영수증과 같은 實用的인 문장, 영화 티켓 등을 읽고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li> </ul>
3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20시간 정도 학습한 수준.</li> <li>-평이한 한국어를 듣고, 말하고, 읽고, 쓸 수 있다.</li> <li>-호텔에서 예약하기, 우체국에서 편지를 보내기, 전철역 등의 창구에서 용건을 이야기하기 등 간단한 회화를 할 수 있다.</li> <li>-기본적인 설명, 광고문 등을 이해할 수 있고, 간단한 문장을 올바르게 쓸 수 있다.</li> <li>-약 1500개 단어와 한자 약 300자를 ‘길잡이’에서 제시.</li> </ul>	[해당 등급이 중급으로 배치되므로 생략하였음]

이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검정시험1에서는 5급에서 3급까지가 초급에 해당되었으나 이번 검정시험2부터 5급은 초급 전반, 4급은 초급 후반(‘도우미’ 9쪽)으로 규정되어 있다. 더 주목해야 할 것은 각 급 레벨이 많이 달라졌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어휘 수는 5급과 4급 모두 약 1.5배로 늘어났다. 사실 그 숫자가 늘어났을 뿐 아니라 각 단어 수준도 많이 달라졌다. 검정시험1의 4급에서 출제되었던 단어들이 검정시험2에서는 5급에서 출제된다는 것이다.

6) 이하 검정시험 중 25회 이전 시험을 ‘검정시험1’, 26회 시험을 ‘검정시험2’로 부르기로 한다. 이 두 시험을 구별하지 않고 검정시험 전체를 가리키는 경우에는 ‘검정시험’으로 제시한다.

따름으로 TOPIK에 대해 정리하겠다. 여기서 평가 기준은 홈페이지(<http://topik.or.kr/>), 평가 내용은 김왕규·김정숙·조항복·정구항·조지민·김수정(2001)에 따른 것이다.

<표3> TOPIK 평가 기준과 어휘·문법 영역의 평가 내용

영역	1급	2급
어휘·문법 영역 평가 내용	- '자기 소개하기, 물건 사기, 음식 주문하기' 등 주어진 주제에 대한 기본적인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 생소한 주제에 대한 기본적인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 '자기 자신, 가족, 취미, 날씨' 등 매일 접하는 주제에 대한 기본적인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 '가족, 친구, 학교, 직장, 여가, 여행, 취미, 취미, 취미' 등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주제에 대한 기본적인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 '가족, 친구, 학교, 직장, 여가, 여행, 취미, 취미, 취미' 등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주제에 대한 기본적인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 '가족, 친구, 학교, 직장, 여가, 여행, 취미, 취미, 취미' 등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주제에 대한 기본적인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 '전화하기, 부탁하기' 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 '가족, 우체국, 은행' 등의 공공시설 이용에 필요한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 '약 1,500~2,000개의 어휘를 이용하여 사적 대화에 참여할 수 있다. - '이것저것' 등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 '공식적 상황과 비공식적 상황에서의 언어를 구별해 사용할 수 있다.
출제 기준	- '자기 소개하기, 물건 사기, 음식 주문하기' 등 주어진 주제에 대한 기본적인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 생소한 주제에 대한 기본적인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 '자기 자신, 가족, 취미, 날씨' 등 매일 접하는 주제에 대한 기본적인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 '가족, 친구, 학교, 직장, 여가, 여행, 취미, 취미, 취미' 등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주제에 대한 기본적인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 '가족, 친구, 학교, 직장, 여가, 여행, 취미, 취미, 취미' 등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주제에 대한 기본적인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 '가족, 친구, 학교, 직장, 여가, 여행, 취미, 취미, 취미' 등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주제에 대한 기본적인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 '전화하기, 부탁하기' 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 '가족, 우체국, 은행' 등의 공공시설 이용에 필요한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 '약 1,500~2,000개의 어휘를 이용하여 사적 대화에 참여할 수 있다. - '이것저것' 등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 '공식적 상황과 비공식적 상황에서의 언어를 구별해 사용할 수 있다.

여기까지 각 능력 평가에 대해 공개된 자료를 제시하였다. 이를 자료에서 얻을 수 있는 내용으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차이는 다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 ① 각 시험에서 요구되는 어휘 수가 다르다
- ② TOPIK와 검정시험2는 조금 첫 단계부터 기능 수행에 관한 목표가 설정되어 있다

①은 어휘 수에 관한 차이인데 대체로 검정시험1.2의 4급과 TOPIK 1급, 그리고 검정시험1.2의 3급과 TOPIK 2급이 서로 대응되는 것으로 보인다. 즉 검정시험 5급 수준의 단어는 TOPIK 1급 어휘에 모자라다는 것이다. 검정시험1.2는 그 단어가 모두 리스트로 공개되어 있으나 TOPIK은 그렇지 않다.7) 학습자 입장에서 볼 때, 조금 단계에서 요구되는 어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는 점에서 어휘를 학습하는 데 많은 부담이 될 것이다. 학습자 입장에서 볼 때, 출제되는 어휘, 문법 항목을 확인할 수 있는 책이나 리스트가 필요할 것이다. 지원하기 전에 자기 실력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고, 또 효율적으로 학습을 진행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7) 고우리(2004:16-18)에서 TOPIK 제3회부터 제6회까지의 문제에 나타난 어휘 빈도를 조사한 바 있는데 그에 따르면 1급에서 제시된 어휘 품사빈도는 총 418개, 2급에서는 총 544개였다.

다음 ②는 기능 수행에 관한 차이이다. 예를 들어 TOPIK 1급 기준에 나타나는 “간단한 생활문과 실용문을 이해하고 구성할 수 있다”는 목표는 검정시험1에서 “기본적인 설명, 광고문 등”으로 3급, 검정시험2에서는 “실용적인 문장”으로 4급에 나타난다. 검정시험1은 5급에서 “초보적인 단어로 짧은 문장을 쓸 수 있다”거나 “1부터 10까지 셀 수 있다” 등 어휘적, 문법적인 측면에 초점이 있다. 한편 검정시험2의 5급과 TOPIK 1급은 “자기 소개하기”, “사적인 화제, 주변의 사실을 전달할 수 있다” 등 기능 수행이 포함되어 있어 각 급에서 요구되는 사항들에 약간 차이가 보인다.

이러한 출제 기준의 차이가 문항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이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 4. TOPIK과 檢定試驗의 全體的 構成

개별적인 문항을 분석함에 앞서 TOPIK과 검정시험1·2의 전체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출제 형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검정시험1·2 ‘筆記’ 문제는 모두 객관식 문항이며 TOPIK은 객관식 문항과 주관식 문항이 출제된다는 점을 명시해 둔다.<sup>8)</sup>

<표4> 검정시험1의 문제 구성(24회, 25회 기준)

등급	문항 유형	문항의 중심 과제
5급	제시된 일본어 단어에 대한 한국어 단어를 한글로 알맞게 표기한 것을 선택	체언, 용언 등의 표기
	제시된 일본어 단어에 맞는 한국어어를 선택	체언, 용언. 일본어의 한글 표기도 포함
	한국어 문장에서 빈칸 메우기(일본어도 함께 제시)	체언
	한국어 문장에서 빈칸 메우기(일본어도 함께 제시)	조사, 용언, 용언 활용형
	대화문(두 문장) 완성	(질문에 대한 대답 선택)
	일본어 인사말에 해당되는 한국어어를 선택	인사말
4급·3급	제시된 한국어어를 발음대로 표기한 것을 선택	발음 변화
	한국어 문장에서 빈칸 메우기(일본어도 함께 제시)	조사가 통합된 명사구, 부사, 조사, 수사
	한국어 문장에서 빈칸 메우기(일본어도 함께 제시)	용언, 용언 활용형(관형사형어미, 연결어미 포함. 3급에서는 용언의 분석적인 형식도 포함)
	대화문(두 문장 이상) 완성	
	장문에서 한자 읽기, 본문 내용 파악, 빈칸 메우기	한자, 부사 등
	한국어를 번역한 일본어 문장 중 맞는 것을 선택	
	일본어를 번역한 한국어 문장 중 맞는 것을 선택	

8) TOPIK 1급·2급에서는 전체 문항의 10%까지 주관식 문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김정숙·최은규·김유정 2005b:92). TOPIK은 2006년도 제10회 시험부터 어휘·문법, 듣기, 읽기 영역은 모두 객관식 문항만으로 구성되며 쓰기 영역에서는 객관식 문항과 주관식 문항이 함께 출제되는 것으로 바뀐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6), 김정숙·최은규·김유정(2005b)를 참조.

<표5> 검정시험2의 문제 구성 (26회 기준)

음분	문항 유형	문항의 중심 과제
	제시된 한국어를 받음대로 표기한 것을 선택	받음 변화(연음화, 종성규칙)
5분	제시된 일본어 단어에 대한 한국어를 선택	제언
	제시된 일본어 단어에 맞는 한국어를 선택	제언, 용언, 부사
	제시된 한국어와 의미가 비슷하고 바뀔 수 있는 것을 선택	제언, 용언
	제시된 한국어 단어 중 다른 것과 관련성이 없는 것을 선택	제언
	대화문(두 문장)에서 빈칸 메우기	대화문(두 문장)에서 빈칸 메우기
	용언 활용형으로 적절한 것을 선택	용언 활용형
	한국어 문장에서 빈칸 메우기	한국어 문장, 대화문에서 빈칸 메우기
	상황이 일본어로 제시되어 그 상황에 맞는 인사말 선택	인사말
	대화문(두 문장) 완성	(질문에 대한 대답 선택)
	제시된 한국어 문장(혹은 그 일부문)과 의미가 비슷한 문장을 선택	
	긴 대화문에서 내용 파악, 빈칸 메우기	
	긴 대화문에서 내용 파악, 빈칸 메우기	
	긴 대화문에서 내용 파악, 빈칸 메우기	
4분	제시된 한국어를 받음대로 표기한 것을 선택	받음 변화(격음화, 비음화, 경음화)
	한국어 문장에서 빈칸 메우기	제언, 부사, 접속사
	대화문(두 문장)에서 빈칸 메우기	제언, 용언, 부사
	제시된 한국어와 의미가 비슷하고 바뀔 수 있는 것을 선택	부사, 연결어미
	제시된 한국어 단어 중 다른 것과 관련성이 없는 것을 선택	제언
	한국어 문장에서 빈칸 메우기	한국어 문장에서 빈칸 메우기
	대화문(두 문장)에서 빈칸 메우기	대화문(두 문장)에서 빈칸 메우기
	제시된 한국어 문장(혹은 그 일부문)과 의미가 비슷한 문장을 선택	
	긴 대화문에서 내용 파악, 빈칸 메우기	
	긴 대화문에서 내용 파악, 빈칸 메우기	
	긴 대화문에서 내용 파악, 빈칸 메우기	
	대화문(두 문장) 완성	대화문(두 문장)에서 빈칸 메우기
	대화문(두 문장)에서 빈칸 메우기	대화문(두 문장)에서 빈칸 메우기
음분	문항 유형	문항의 중심 과제
	그림을 보고 대화문에서 빈칸 메우기	제언, 용언
1분	대화문(두 문장)에서 제시된 어휘에 대한 반의어 선택	제언, 부사
	문장에서 빈칸 메우기	문장에서 빈칸 메우기
	문장에서 빈칸 메우기	문장에서 빈칸 메우기
	대화문(두 문장)에서 빈칸 메우기	대화문(두 문장)에서 빈칸 메우기
	용언 활용형	용언 활용형
	연결어미	연결어미
	대화문(세 문장 이상)에서 용언 고쳐쓰기, 빈칸 메우기	대화문(세 문장 이상)에서 용언 고쳐쓰기, 빈칸 메우기, 부사
	대화문(세 문장 이상)에서 빈칸 메우기	대화문(세 문장 이상)에서 빈칸 메우기
	대화문(세 문장 이상)에서 내용 파악, 빈칸 메우기	대화문(세 문장 이상)에서 내용 파악, 빈칸 메우기
	대화문(세 문장 이상)에서 빈칸 메우기	대화문(세 문장 이상)에서 빈칸 메우기
	대화문(세 문장 이상)에서 빈칸 메우기	대화문(세 문장 이상)에서 빈칸 메우기
	대화문(세 문장 이상)에서 빈칸 메우기	대화문(세 문장 이상)에서 빈칸 메우기
	대화문(세 문장 이상)에서 빈칸 메우기	대화문(세 문장 이상)에서 빈칸 메우기

<표6> TOPIK의 문제 구성

음분	문항 유형	문항의 중심 과제
	그림을 보고 대화문에서 빈칸 메우기	제언, 용언
1분	대화문(두 문장)에서 제시된 어휘에 대한 반의어 선택	제언, 부사
	문장에서 빈칸 메우기	문장에서 빈칸 메우기
	문장에서 빈칸 메우기	문장에서 빈칸 메우기
	대화문(두 문장)에서 빈칸 메우기	대화문(두 문장)에서 빈칸 메우기
	용언 활용형	용언 활용형
	연결어미	연결어미
	대화문(세 문장 이상)에서 용언 고쳐쓰기, 빈칸 메우기	대화문(세 문장 이상)에서 용언 고쳐쓰기, 빈칸 메우기, 부사
	대화문(세 문장 이상)에서 빈칸 메우기	대화문(세 문장 이상)에서 빈칸 메우기
	대화문(세 문장 이상)에서 내용 파악, 빈칸 메우기	대화문(세 문장 이상)에서 내용 파악, 빈칸 메우기
	대화문(세 문장 이상)에서 빈칸 메우기	대화문(세 문장 이상)에서 빈칸 메우기
	대화문(세 문장 이상)에서 빈칸 메우기	대화문(세 문장 이상)에서 빈칸 메우기
	대화문(세 문장 이상)에서 빈칸 메우기	대화문(세 문장 이상)에서 빈칸 메우기

등급	영역	문항 유형	문항의 중심 과제
1급	쓰기	대화문(두 문장) 완성	(질문에 대한 대답)
		대화문(두 문장) 완성	(대답에 대한 질문)
		대화문(세 문장 이상) 완성	
		제시된 단어들의 순서를 바꾸어 적절한 문장 만들기	
		두 문장 연결하기	연결어미
		두 문장 연결하기	접속사
		글(네 문장) 중에서 잘못 쓴 문장을 선택	
		긴 대화문 완성	
		긴 대화문 완성	
2급	어휘·문법	대화문(두 문장)에서 빈칸 메우기	체언, 용언, 부사
		대화문(두 문장)에서 제시된 어휘에 대한 반의어 선택	용언
		문장에서 제시된 부분에 대한 유의어 선택	명사구, 용언, 부사
		문장에서 빈칸 메우기	체언, 용언
		문장에서 빈칸 메우기	조사
		대화문(두 문장)에서 빈칸 메우기	용언의 분석적인 형식, 연결어미
		틀린 문장 선택	용언의 변칙활용, 존대말, 관형사형어미
		대화(네 문장 이상)에서 빈칸 메우기	용언, 연결어미
		대화(네 문장 이상)에서 용언 고쳐쓰기, 빈칸 메우기	용언 활용형
		글에서 내용 보충, 빈칸 메우기	용언 활용형
	쓰기	대화문(두 문장)에서 빈칸 메우기	(질문에 대한 대답)
		대화문(두 문장)에서 빈칸 메우기	(대답에 대한 질문)
		두 문장 연결하기	연결어미
		대화문(세 문장 이상) 완성	
		실용적인 글 내용에 맞는 제목 선택	
		글 내용에 맞게 문장 고쳐쓰기	
		긴 대화문 완성	
		긴 대화문 완성	
		글에서 빈칸 메우기	
		글에서 빈칸 메우기	

이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문항의 유형, 그리고 문항에서 묻는 내용은 각 시험별로 매회 일정하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TOPIK은 1급부터 문제에 대화문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검정시험 1·2에서도 대화문은 확인되지만 그것은 대화 완성이란 유형에서만 나타나는 것이다. 또한 검정시험1과 2 사이에는 일본어가 제시되는 분량에 차이가 있다. 검정시험1은 문장의 빈칸을 메우는 문항에서도 일본어 번역이 함께 제시된다. 또한 한국어/일본어 번역에 관한 문항도 출제된다. 그러나 검정시험2에서는 단어의 의미 파악을 제외하면 일본어가 거의 안 나타난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는 9.2절에서 논의할 것이다.

검정시험1은 5급에서 “도쿄, 오사카”와 같은 일본어의 한글 표기가 출제된다. 이것은 TOPIK과 검정시험2에는 안 보이는, 검정시험1만의 특징이다. 한글을 제대로 읽을 수 있는가, 적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데 일본어의 한글 표기는 적당한 문항이라 할 수 있다. 또 자기 자신의



이름이나 주변의 지명 등 익숙한 일본어도 한글로 표기할 수 있다는 것은 한국어에 대한 학습자의 관심을 환기시킨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다. 검정시험1에서는 이러한 점을 중요시하여 일본어의 한글 표기가 출제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하에서는 이들 문항에 대해 구체적인 분석으로 들어간다. 여기서는 발음, 어휘, 문법, 그리고 담화의 네 가지 관점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sup>9)</sup>

## 5. 發音에 관한 問項

Yutani(2002:302), 이희경(2005:492)에서도 언급되었듯이 검정시험의 큰 특징 중 하나는 발음에 관한 문제가 출제된다는 것이다. 먼저 발음에 관한 출제 기준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2) 검정시험1(‘길잡이’ 22, 25쪽 참조)

4급: 비음화, 격음화, 유음화, 구개음화, 폐쇄음 연속으로 인한 경음화(책상[책쌍])

3급: ㄹ의 비음화(독립[동닙]), 경음화(앉을 자리[안줄 짜리], 길가[길까], 성격[성격] 등)

(3) 검정시험2(‘도우미’ 45~46쪽 참조)

4급: 비음화(1)(작년[장년]), 연음화, 격음화, 유음화, 구개음화, 경음화(신다[신따], 먹을 것[머글것], 결정[결정] 등)

발음에 관한 실제 문항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4) 검정시험1: 25회/4급

☐ 1)~5)의 어구를 발음하는 대로 표기한 것을 ①~④ 중에서 하나 고르십시오.

1) 잃어서 (失って): ① 일혀서 ② 이혀서 ③ 이려서 ④ 이어서

(5) 검정시험2: 26회/4급

☐ 발음대로 표기한 것을 ①~④ 중에서 하나 고르십시오.

1) 못해요: ① 모세요 ② 모대요 ③ 모태요 ④ 모해요

한편 TOPIK에는 발음에 관한 문항이 전혀 없다. 이 점이 검정시험과 TOPIK의 결정적인 차이이다.

발음 문항에 대한 이러한 차이는 언어 교육에서 발음 교육을 어떻게 인식하며 또 발음을 어떻게 가르치는가 하는 근본적인 입장의 차이로 볼 수 있다. 이 점에서 한국과 일본은 그 관점이 전혀 다르다.

한국과 일본에서 출판된 한국어 교재를 검토해 보면 그러한 사정을 다른 각도에서 엿볼 수 있다. 한국 국내에서 출판된 교재<sup>10)</sup>에서 발음 변화에 대한 설명은 그리 많지 않다. 경희대에서 출

9) 이하 실제 문항을 제시할 때에는 “시행횟수/급(/출제 영역)”과 같이 표시하기로 한다. 24-26회는 검정시험, 7-9회는 TOPIK을 가리킨다. TOPIK에 대해서는 출제 영역도 아울러 표시한다. 예를 들어 “검정시험1: 25회/4급”은 검정시험 25회 4급 문제를 가리키며 “TOPIK: 8회/1급/어휘·문법”은 TOPIK 8회 1급 문제 중 어휘·문법 영역에서 출제된 문항을 가리킨다. 검정시험에서 문제 지시문 등의 일본어 부분은 한국어로 번역하였다. 실제 문항에 없거나 편의상 한국어로 번역하여 덧붙인 부분은 모두 [ ] 안에 넣어서 표시하기로 한다.

10) 여기서 참조한 한국어 교과서는 《한국어 1》(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2000), 《한국어 1》(한국어문화연수부 편 2003), 《한국어 초급 I-II》(김중섭·조현용·방성원·홍윤기·호정은 2000, 2001), 《말이 트이는 한국어 I》(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 1998), 《한국어 1》(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편 1992)이다.

판된 《한국어 초급 I·II》에는 연음화, ㅎ탈락, 격음화, 경음화 등 비교적 많은 발음 변화에 대한 설명이 있다. 그리고 서울대 《한국어 1》에서는 비음화에 대한 언급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외의 교재에는 발음 변화에 관한 언급이 거의 없다.

한편 일본에서 출판된 교재들은 발음 변화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 노마[野間秀樹](2000), 노마[野間秀樹]·무라타[村田寛]·金珍娥(2004)는 본문에서 비음화, 격음화 등을 비롯한 발음 변화를 설명하는 것은 물론, 책 뒷부분에 부록으로 발음 변화를 10가지 이상의 항목으로 나누어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또한 오고시[生越直樹]·曹喜澈(2000), 하세가와[長谷川由起子](2004), 유타니[油谷幸利]·高榮珍(2005) 등에서도 문자와 발음의 도입과 함께 발음변화도 설명하고 있다.

이 점만 보아도 일본에서 출판된 교재들은 발음 변화를 학습자에게 필요한 지식으로서 인식하고 있는 반면, 한국 교재에서는 그러한 인식이 희박하다고 할 수 있다. 교재에도 나타난 이러한 교육 내용의 차이가 능력 평가에도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국 국내의 이러한 입장을 볼 때, 발음 변화의 지도가 한국 국내에서 그리 중요시되고 있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발음 교육에 있어서 실제로 그 발음을 할 수 있는 것이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을 지탱하는 발음에 대한 규칙을 지식으로서 알고 있다는 것도 중요하다. 각 단어의 개별적인 발음 변화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이해를 통해 새로 접하게 되는 단어에 대해서도 그러한 규칙을 적용할 수가 있어 학습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일본에서 출판된 한국어 교재에서는 이러한 발음의 관한 지식을 정리하여 체계적으로 지도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발전’[발쩐], ‘발달’[발딸] 등 한자어의 종성 ‘ㄹ’ 뒤에서 일어나는 경음화에 관해서 간노[菅野裕臣](1981:65-66), 권在淑(1995:212-213), 노마[野間秀樹](2000:186)을 비롯하여 몇 가지 교재에서는 규칙화하여 기술되어 있다. 한편 한국에서 출판된 교재에서는 이러한 체계적인 기술이 거의 안 보인다.

교재에 대해 한 가지 더 부언하자면 한국에서 출판된 교재에는 발음에 관한 음성학적인 기술이 거의 안 보이고 발음 기호(IPA)를 붙이는 데 그치고 있다. 한편 일본에서 출판된 노마[野間秀樹](2000:20)에서는 한국어 단모음의 발음에 대해 모음삼각도를 제시하여 각 단모음의 조음 위치를 시각적으로 알 수 있도록 기술되어 있다. 또한 종성에 나타나는 비음에 대해서는 조음기관 단면도를 이용하여 혀의 위치를 그림으로 표시하고 있다(노마[野間秀樹], 2000:28).

발음 변화의 지도에 대해 무관심하면 학습자들이 하는 잘못된 발음을 그대로 허용하게 될 우려가 있다. 의사소통, 그리고 기능 수행을 우선적인 과제로 하면 학습자가 정확한 발음을 못하더라도 의사소통이 된다는 것에 교사가 만족해 버릴 수 있다. 이것은 교사들이 지향하는 ‘초급’에 대한 개념 차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 6. 語彙와 인사말에 관한 問項

여기서는 어휘에 관한 문항 중 한자에 대한 문항과 인사말에 대한 문항을 살펴보겠다. 인사말은 거기에 나타나는 어휘나 문법을 떠나서 표현을 통제로 외워야 한다는 점에서 어휘에 관한 문항으로 간주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 6.1 漢字에 관한 問項

한자에 대한 문항 역시 일본어 모어화자를 응시 대상으로 하는 검정시험이 독자적으로 가진 특징이라 하겠다. 검정시험1에서는 3급 이상의 등급에서 한자를 올바르게 읽을 수 있는지 묻는 문항이 출제된다. ‘길잡이’에서 약 300개 한자(3급)를 제시하였다.

### (6) 검정시험1: 24회/3급

㉮ 문제 3. 밑줄 친 한자의 한글 표기로서 알맞은 것을 ①~④ 중에서 하나 고르십시오.

- 1) 飲食: ① 인식 ② 음색 ③ 입식 ④ 음식  
2) 方法: ① 방법 ② 반법 ③ 방벽 ④ 반복

이러한 문항은 학습자가 한자·한자어에 대해 관심을 가질 기회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효율적인 어휘 학습의 계기가 된다. 한국어와 일본어의 어휘가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어와 일본어 어휘는 모두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어와 일본어 모두 한자음을 가지고 있으며 그 한자음을 바탕으로 한자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동일하다. 특히 한자음은 한국어와 일본어 사이에 어느 정도 대응 관계가 보인다. 이러한 공통점을 바탕으로 일본어 모어화자는 한국어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어떤 단어가 고유어인지 한자어인지를 자꾸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거꾸로 그것을 추측할 수 있으면 학습자들은 효율적으로 한국어 어휘를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노마[野間秀樹]·金珍娥(2005:20-21)에서는 이러한 점을 입문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강조하여 한자·한자어에 대한 학습자의 관심을 높이도록 노력하고 있다. 검정시험에서 출제되는 (6)과 같은 문항은 이러한 노력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또한 노마[野間秀樹](2000:224-237)에는 한국어와 일본어의 한자음을 대조한 리스트가 실려 있다. 한편 이토[伊藤英人](2005)에서는 “한국 한자음 교육법”이란 제목으로 한자음 교육 자체를 한국어 교사 연수 과정<sup>11)</sup>에서 가르치고 있다. 이러한 사실만 보아도 일본에서는 한자음과 한자어에 대한 교육이 얼마나 중요시되는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검정시험에 보이는 한자에 관한 문항도 이러한 입장이 능력 평가에 반영된 것이라 하겠다.

## 6.2 인사말에 관한 問項

여기서 인사말에 관한 문항을 살펴보도록 한다. 검정시험 5급 문제에는 일본어 인사말에 해당되는 한국어 표현을 대답하는 문항이 출제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7) 검정시험1: 25회/5급

㉮ 다음 인사말에 해당하는 것을 ①~④ 중에서 하나 고르십시오.

- 1) 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축하합니다]  
① 축하합니다. ② 감사합니다. ③ 반갑습니다. ④ 실례합니다.

11) 이 “한국어 교사 연수회”는 한국어 교사를 대상으로 주일본한국대사관 한국문화원이 주최하는 과정으로 2004년도에 처음 시작되었다. 올해 2006년도는 제3회 연수회가 8월 14일부터 18일까지 동경에서 개최된다.

이러한 인사말은 그 표현에 포함되는 문법 항목이나 어휘를 불문하고 5급에서 16개, 4급에서 34개(검정시험1의 경우, 5급 수준에 18개를 추가)가 출제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sup>12)</sup> TOPIK 1급·2급 문제에는 직접적으로 인사말에 대해 묻는 문항은 없다. 몇 개 문항에서 보기로 제시된 문장에 인사말이 나타나지만 이러한 문항은 인사말을 몰라도 정답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이다. 예를 들어 다음 문항에서 “안녕하세요?”는 문제의 답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8) TOPIK: 8회/1급/쓰기

[59~60] 다음 글을 읽고 ( )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가: 안녕하세요? 존슨 씨, 한국 생활이 어때요?

나: 처음에는 한국 생활이 어려웠지만 (㉠).

가: 주말에는 무엇을 해요? [ ... 중간 부분은 생략]

59. (㉠)

- ① 요즘은 힘들어요    ② 지금은 더 좋아요  
③ 요즘은 재미있어요    ④ 지금은 더 어려워요

인사말에 관한 문항이 있다는 것도 TOPIK과 검정시험의 차이이다. 검정시험은 초급의 첫 단계에서 인사말을 중요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TOPIK에서는 문제 지시문에 한국어만 사용해야 하므로 인사말에 관한 문항을 만들기가 어려울지도 모른다. 상황을 한국어로 설명해 주어야 하는데 그 설명 자체가 초급의 범위를 넘어설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처음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학습자에게는 인사말을 외우는 것은 아주 어렵다. 거꾸로 그러한 인사말을 알고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이 학습자에게 자신감을 주는 결과가 될 것이다. 의사소통에 있어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인사말을 초급의 첫 단계에서 중요한 요소로 볼 것인가 하는 점에서 TOPIK과 검정시험에 인식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7. 文法에 관한 問項

여기서는 검정시험과 TOPIK에 나타난 문법 형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검정시험은 출제되는 문법사항이 모두 ‘길잡이’, ‘도우미’에 제시되어 있다. 한편 TOPIK은 그러한 리스트가 공개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출 문제와 평가 내용에 나타난 일부 항목을 정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하의 기술에서 검정시험은 기출 문제와 출제 기준(‘길잡이’, ‘도우미’ 참조)을, TOPIK은 기출 문제와 평가 내용을 참조하였음을 명시해 둔다.

### 7.1 文法形態에 관한 分析

두 능력 평가에 나타난 문법 형태를 조사, 어말어미, 선어말어미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sup>13)</sup> 이하의 기술에서는 TOPIK에 나타나는 문법 형태가 검정시험의 어느 단계에 나타나는지 대응시켜 정리하기로 한다.

12) 검정시험2는 5급에서 31개, 4급에서는 45개(5급 수준 포함)가 포함된다.

13) 이하 어미나 조사 등 형태를 제시할 경우는 백봉자(1999)를 따라 표시하기로 한다.

7.1.1 助詞에 관한 問項

TOPIK을 기준으로 하여 어떤 조사가 검정시험의 어느 수준에서 출제되는지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7> TOPIK 문제에 나타난 조사와 검정시험과의 대응 양상

조사	TOPIK	검정시험1	검정시험2
-가/이, -를/을, -에, -(으)로, -에서, -에게, -한테, -의, -는/은, -도, -부터, -와/과, -하고	1급	5급	5급
-만, -까지	1급	4급	5급
-에서는, -에는	1급	5급	4급
-보다	2급	5급	5급
-처럼, -께서, -께	2급	4급	4급
(명사) 때문에	2급	3급	4급
-밖에(+부정 표현)	2급	3급	3급
-(이)나, -만큼	2급	준2급	3급
-야/아	2급	없음	준2급

TOPIK 1급에는 호격조사<sup>14)</sup>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격조사가 포함된다. 그리고 ‘-는/은, -도, -만, -까지’와 같은 보조사가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검정시험 5급 내지 4급에 해당된다. 조사에 관한 한 초급 첫 단계에서 배워야 할 항목들은 두 능력 평가에서 일치된다고 볼 수 있다.

TOPIK 2급 문제에서는 다양한 보조사와 조사의 존경형이 추가된다. 대응되는 검정시험의 수준도 다양한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나, -만큼’ 등 검정시험의 중급에 해당되는 조사가 TOPIK 2급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보다’와 같이 검정시험 5급 수준의 조사가 TOPIK 2급에 처음으로 출제된다. TOPIK 1급 수준의 조사는 TOPIK과 검정시험에서 거의 일치되었는데 그 이외의 조사에 관해서는 어떠한 항목을 어떠한 순서로 배치할 것인지 두 능력 평가에서 차이가 커진다.

<표7>에 제시한 것 외에 TOPIK 1급과 2급 문제에 ‘-마다’가 나타났으나 이것은 ‘날마다’란 단어로만 출제된 것이다. ‘-마다’는 검정시험1의 3급, 검정시험2의 4급에 해당된다.

조사에 관한 문항은 그 출제 양식이 검정시험과 TOPIK에서 거의 비슷하다.

- (9) TOPIK: 7회/1급/어휘·문법  
 [13~14] <보기>와 같이 ( )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13. 제 방( ) 책상이 없어요.  
 ① 에 ② 을 ③ 에게 ④ 에서
- (10) 검정시험1: 24회/5급  
 ⑤ ( ) 안에 맞는 것을 ①~④ 중에서 하나 고르십시오.  
 3) 오늘은 친구( ) 만납니다.

14) 호격조사 ‘-아/야’가 TOPIK의 2급, 검정시험2의 준2급에 보이지만 검정시험1에서는 ‘길잡이’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길잡이’ 20쪽에 보면 대우법에 관해서 ‘해체’가 준2급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것과 관련시켜서 검정시험1에서도 ‘-아/야’를 준2급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今日は友だちに会います. [오늘은 친구를 만납니다])

① 에 ② 을 ③ 에게 ④ 를

검정시험에서는 5급·4급 문제에서 조사에 관한 문항이 매회 몇 문항씩 출제된다. ‘-께, -께서’ 등 경어법과 관련된 문항, 그리고 (10)처럼 한국어와 일본어 사이에 보이는 차이를 묻는 문항이 많이 출제된다.

7.1.2. 語末語尾에 관한 問項

다음으로 어말어미와 관련된 문항을 검토하기로 한다. 여기서는 종결어미, 연결어미, 관형사형 어미에 대해서 살펴해보도록 한다.

7.1.2.1 終結語尾

TOPIK 문제에 나타난 종결어미와 검정시험1·2와의 대응 양상은 다음과 같다.

<표8> TOPIK 문제에 나타난 종결어미와 검정시험과의 대응 양상

종결어미	TOPIK	검정시험1	검정시험2
-(으)니까	1급	5급	5급
-ㅂ/습니다	1급	5급	5급
-어/아/여요	1급	5급	5급
-지요	1급	4급	5급
-(으)세요(평서문)	1급	4급	5급
-(으)세요(명령문)	1급	3급	5급
-(으)르까요	1급	3급	5급
-(으)ㅂ시다	1급	3급	5급
-(으)르게요	1급	3급	4급
-(으)십시오	1급	3급	4급
-(으)르래요	1급	준2급	4급
-는/(으)ㄴ데요	1급	3급	3급
-군(요) <sup>15)</sup>	1급	준2급	3급
-요	2급	3급	5급
-네요	2급	3급	4급
-(는/ㄴ)다	2급	3급	3급
-어/아/여야겠다	2급	준2급	없음
-어/아/여(해체)	2급	준2급	3급
-(는)구나(해체)	2급	준2급	준2급
-지(해체)	2급	준2급	없음
-자(해체)	2급	준2급	없음

15) 간투사 “그랬군요”로만 나타났다. 정답으로 설정된 문항은 하나도 없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다음 두 가지이다.

첫째, TOPIK 1급에는 3급에 해당하는 다양한 종결어미가 나타나 있다.

일부 검정시험의 등급 수준까지 포함되어 있다.16) 둘째, TOPIK 2급 문법에 “해”체 종결어미가 나타난다. <표8>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해”체는

검정시험 등급에 있어서야 둘째되는 것이다. 이 두 가지만 보아도 TOPIK에서는 매우 다양한 종결어미들이 둘째되고 있음은 알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검정시험1과 2 사이에도 차이가 확인된다. “-(으)르카요, -(으)르시다” 등 검정시험1에

서 3급에 해당하는 어미가 검정시험2에서는 5급에 포함되어 있다. 검정시험 5급이란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첫 단계라 할 수 있는데 너무 많은 항목을 포함시키면 학습자의 부담이 커지고 또

의욕도 상할 수가 있다. 다음은 TOPIK 2급 문법에 나타난 “해”체 종결어미들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제8회 시험에만

출제된 것인데 문항 전체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1) TOPIK: 8회/2급/쓰기

[53~54] 다음 글을 읽고 ( )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가: 영수야, 오랜만이다.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어?

나: 잘 지내고 있어. ( )?

가: 그래, 정말 덥구나. 그런데 지영이는 왜 안 오지?

나: 응, 지영이는 오늘 회사에 일이 있어서 ( ) 했어.

가: 그럼 저녁을 먹자.

53. ( ) : ① 요즘 날씨가 덥지 ② 요즘 날씨가 아예

③ 더울 때 무엇을 해 ④ 더운 날씨를 좋아해

54. ( ) : ① 못 온다고 ② 기다린다고 ③ 와야 한다고 ④ 저녁을 먹는다고

이 문항에서 확인되는 발화 상황은 한국에서 누구나 접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발화

체까지 조금 수준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한지는 의심스럽다. 여기서도 일문에서 출판된 조금

재를 보면 노마[野間秀樹](2000)에서는 문장체로서 “한다”체는 제시하였으나 해체는 다루지

않았다. 權在淑(1995), 오고시[生越直樹]·權在淑(2000)에서도 “해”체는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일문에서는 체계적으로 기술된 조금 문항에서 “해”체를 취급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해요체조차 다루지 않고 격조체인 “-비/습니다”만으로 기술된 문항도 많다. “조금” 단

계에서 품명의 등급을 어디까지 포함시킬 것인지 하는 문제는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

다. 즉 비포어로서의 언어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언어 교육의 근본적인 사항이 반영되어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이 문항에는 “해”체 종결어미 외에도 호격조사 “-야, 접미사 “-이, 분석적인 형식 “-

고 있다” 등 아주 다양한 문법 형태들이 나타나 있다. 또 54번 문항에서는 인용문까지 출제되었

다. “해”체 종결어미만 보아도 <표8>에 제시하였듯이 검정시험 등급에 해당되는 것인데 그 외

에 많은 형태들을 포함시키면 문항의 핵심에서 벗어나는 부분이 많아지므로 수험자가 어려움을

16) 참고로 일문에서 출판된 문항의 관례를 보면 權在淑(1995)에서는 “-(으)르게, “-(으)르려오”를 제외하고 나머

느낄 수도 있다. '초급'에서 필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평가해야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고려하여 문제에 포함시킬 항목을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7.1.2.2 連結語尾

다음으로 두 능력 평가에 나타난 연결어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검정시험 5급에는 연결어미가 포함되지 않는다. 즉 單文만 출제된다는 것이다. 한편 TOPIK에서는 1급부터 연결어미가 출제된다. 이것은 초급의 어느 단계에서 複文이 요구되는지 인식의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다음 표는 TOPIK에 나타난 연결어미와 검정시험과의 대응 양상을 정리한 것이다.

<표9> TOPIK 문제에 나타난 연결어미와 검정시험과의 대응 양상

연결어미	TOPIK	검정시험1	검정시험2
-고	1급	4급	4급
-지만	1급	4급	4급
-어/아/여서	1급	4급	4급
-(으)면	1급	4급	4급
-(으)러	1급	3급	4급
-(으)니까	1급	3급	4급
-게	1급	4급	3급
-는/(으)는데	1급	준2급	3급
-(으)려고	2급	3급	4급
-(는/ㄴ)다고	2급	3급	4급
-(으)면서	2급	3급	3급
-거나	2급	준2급	3급
-(으)려면	2급	2급	3급
-는/(으)ㄴ/(으)르지	2급	준2급	준2급

여기서도 종결어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TOPIK 1급에 검정시험의 중급 수준에 해당되는 어미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sup>17)</sup>

TOPIK 1급 문제를 보면 어휘·문법 영역에 대화 중의 빈칸을 매우는 문항, 그리고 쓰기 영역에 두 문장을 적절하게 연결시키는 문장을 고르는 문항이 매회 출제되고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2) TOPIK: 9회/1급/어휘·문법

[21~24] <보기>와 같이 ( )에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21. 가: 왜 수미 씨 생일 파티에 안 갔어요?

나: 감기에 ( ) 못 갔어요.

- ① 걸리고 ② 걸려서 ③ 걸리면 ④ 걸리지만

(13) TOPIK: 8회/1급/쓰기

[48~50] <보기>와 같이 두 문장을 바르게 연결한 것을 고르십시오.

17) 일본에서 출판된 교재에서는 연결어미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차이가 보인다. 노마[野間秀樹](2000)에서는 TOPIK 1급에 나타난 연결어미는 다 취급하고 있다. 오고시[生越直樹]·曹喜澈(2000)에서는 '-게'를 제외하고 TOPIK 1급 수준의 연결어미를 다루는 데 비해 權在淑(1995)는 '-고, -어/아/여서, -(으)면, -(으)니까'만 포함시켰다.



50. 김 선생님을 만납니다. 사무실에 갑니다.  
① 김 선생님을 만나러 사무실에 갑니다.  
② 김 선생님을 만나는데 사무실에 갑니다.  
③ 김 선생님을 만나니까 사무실에 갑니다.  
④ 김 선생님을 만나지만 사무실에 갑니다.

검정시험에서도 (12)처럼 연결어미를 선택하는 문항이 출제되고 또 한국어 혹은 일본어 문장을 번역하는 문제에서도 연결어미에 관한 문항이 나타난다.

(14) 검정시험1: 25회/3급

⑥ 1)~5)를 일본어로 번역한 문장으로 적절한 것을 ①~④ 중에서 하나 고르십시오.

1) 그 문제가 해결 안 돼서 힘들어요.

- ① その問題が解決されないとむずかしいです。  
② その問題が解決しないのでたいへんです。  
③ その問題がとけなくて苦労しました。  
④ その問題が解決しなくても苦しいです。

이 문항은 “해결 안 돼서” 부분과 “힘들어요” 부분의 의미 파악에 초점이 있다. 매개가 되는 일본어가 없어진 검정시험2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항이 출제되었다.

(15) 검정시험2: 26회/4급18)

④ 밑줄 친 부분과 바꾸어 쓸 수 있는 것을 ①~④ 중에서 하나 고르십시오.

2) 식사를 한 후에 도서관에 갔어요.

- ① 하고 ② 하러 ③ 해서 ④ 해도

검정시험2 문제를 보면 연결어미를 직접 고르는 문항은 (15)밖에 없고 또 문제 전체를 보아도 ‘-어/아/여도 되다, -고 있다’ 등 분석적인 형식에 포함된 것을 제외하면 한 문항밖에 출제되지 않았다. TOPIK에서는 매회 몇 문항씩 연결어미에 관한 문항이 출제되는 것과는 대조적이라 할 수 있다.

검정시험에서 중급에 배치된 ‘-거나’가 TOPIK에서 2급에 포함되어 있다.

(16) TOPIK: 7회/2급

[45~48] <보기>와 같이 ( )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47. 가: 방학 계획이 뭐예요?

나: 매일 아침 ( )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 ① 공부를 하면 ② 방학을 시작해서 ③ 산책을 하거나 ④ 저녁에 계획할 때

이 문항에서 ‘-거나’는 정답으로 되어 있어 TOPIK 초급에서는 검정시험의 중급 수준까지 요구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8) 이 문항에서 정답은 “①하고”일 것인데 문맥에 따라서는 “③해서”도 가능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적절한 문맥이 제시되어야 하나의 정답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8.2절에서 다시 검토하겠다.

검정시험1·2는 연결어미에 대해 초급의 첫 단계, 즉 5급에서는 아직 배울 필요가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TOPIK에서는 1급부터 연결어미를 중시하여 출제하고 있다. 초급 단계부터 연결어미를 학습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는 듯하나 너무 많은 항목을 포함시키면 학습자에게 혼란을 일으킬 수가 있다. 검정시험에서는 연결어미를 4급부터 중급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출제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그러한 혼란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 7.1.2.3 冠形詞形語尾

관형사형어미 ‘-는, -(으)ㄴ, -(으)ㄹ’은 검정시험1·2에서 모두 4급 출제 기준에 포함되어 있다.<sup>19)</sup> 한편 TOPIK에서는 1급 문제에 관형사형어미가 확인된다.

#### (17) TOPIK: 7회/1급/쓰기

[41~45] <보기>와 같이 밑줄 친 부분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42. 가: \_\_\_\_\_?

나: 저는 피아노를 치는 것을 좋아해요.

가: 아, 그래요? 저도 피아노를 자주 쳐요. [선택지는 생략]

#### (18) TOPIK: 8회/1급/쓰기

[59~60] 다음 글을 읽고 ( )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앞부분 생략]

가: 주말에는 무엇을 해요?

나: 지난 주말에는 바빴어요. ( ) 회사에서 일을 했어요.

가: 그랬군요.

60. ( ) ① 쉴 수 있어서                    ② 쉬고 싶었지만  
          ③ 쉬고 싶으니까                    ④ 쉬는 것이 좋아서

#### (19) TOPIK: 9회/1급/어휘·문법<sup>20)</sup>

[17~20] <보기>와 같이 ( )에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18. 가: 언제 회사에 가요?

나: 한 시간 후에 ( )

- ① 가지요? ② 갔어요. ③ 갈 거예요. ④ 가고 있어요.

TOPIK 1급 문제에 나타난 용언 관형사형은 (17, 18)처럼 ‘-는 것이/것을’의 형식으로 3개, 그리고 (18)의 ‘지난’ 1개(“지난주”는 제외), 그리고 ‘다른’이 1개 나타났다. 또한 ‘-(으)ㄹ’은 (19)와 같이 ‘-(으)ㄹ 거예요’의 형식으로만 나타난다.<sup>21)</sup> 이 ‘-(으)ㄹ 거예요’는 (19)처럼 시간적인 선후 관계를 묻는 문항에서 빈번히 출제된다. <표3>에서 보았듯이 용언 관형사형은 TOPIK 2급의 평가 내용에 포함된다. ‘-(으)ㄹ 거예요’와 같은 분석적인 형식의 일부라 하더라도 TOPIK 1급 단계에서 학습자는 형태론적으로 관형사형어미 ‘-(으)ㄹ’을 파악하지 못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급 문제에 ‘-(으)ㄹ’이 나타남은 이러한 기준 설정에 어긋나는 것이라 할 수 있다.<sup>22)</sup>

19) 관형사형어미 ‘-던’은 검정시험1·2의 3급, ‘-었/았/였던’은 준2급(검정시험1), 3급(검정시험2)에 포함된다. 또 ‘-던’은 TOPIK에서 초급 문제에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하의 기술에서는 제외하기로 한다.

20) 이 문항 역시 문맥에 따라서는 “①가지요?”도 정답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21) 참고로 ‘-(으)ㄹ 거예요’는 검정시험1에서 3급, 검정시험2에서 4급에 배치된 표현이다. 7.2절 <표11>을 참조.

22) 또 TOPIK 1급 시험 문제를 보면 문제 지시문에는 용언 관형사형이 유난히 많다. 예를 들어 “<보기>와 같이 밑

TOPIK 2급 문제에서는 관형사형어미의 시제를 묻는 문항이 출제된다.

(20) TOPIK: 8회/2급/어휘·문법

[22~24] <보기>와 같이 밑줄 친 부분이 틀린 것을 고르십시오.

23. ① 이 가방이 지난주에 산 거예요.  
 ② 제가 요즘 다니는 학원은 시내에 있어요.  
 ③ 이번 주말에 우리가 갈 여행지는 경주예요.  
 ④ 저기에 있는 사람이 제 동생이에요.

비슷한 문항은 검정시험에서도 확인된다.

(21) 검정시험1: 25회/3급

③ ( )에 맞는 것을 ①~④ 중에서 하나 고르십시오.

5) 처음 ( 15 ) 때보다 긴장하지 않았어요.

(会った[만났을])

- ① 만나는 ② 만났을 ③ 만났는 ④ 만났은

(22) 검정시험1: 25회/4급

③ ( )에 맞는 것을 ①~④ 중에서 하나 고르십시오.

6) ( 21 ) 동물이 무엇입니까?

(きらいな[싫어하는])

- ① 싫어한 ② 싫어는 ③ 싫는 ④ 싫어하는

(21, 22)과 같은 문항은 검정시험1에서는 3·4급 문제에 매회 한 문항씩 출제되었으나 검정시험2에서는 같은 문제 양식으로 관형사형어미에 대해 묻는 문항은 없었다.

### 7.1.3 先語末語尾에 관한 問項

여기서는 선어말어미 ‘-시-’, ‘-었/았/였-’(이하 ‘-었-’), ‘-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이들 선어말어미는 모두 TOPIK 1급부터 문제에 나타난다. 검정시험 출제 기준도 함께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10> 선어말어미에 관한 출제 기준

선어말어미	TOPIK	검정시험1	검정시험2
-었-	1급	4급	5급
-겠-	1급	3급	5급
-시-	1급	4급	4급

여기서 검정시험1과 2 사이의 차이를 지적할 수 있다. 검정시험1에서 4급 이상의 급에 포함된 선어말어미가 검정시험2부터는 모두 5급 내지 4급에 출제된다. 특히 ‘-겠-’은 검정시험1에서 3

줄 친 부분의 의미와 비슷한 것을 고르십시오.”(TOPIK: 8회/1급/어휘·문법7~9 지시문)와 같은 지시문을 생각해 보면 지시문에 용언 관형사형이 두 번이나 나타나 있다. <보기>가 있으므로 지시문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문제 내용을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만약 <보기>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 문항은 모두 대답을 못할 것이다.

급에 해당되는데 검정시험2에서는 5급 수준에 포함된다. 검정시험2의 5급 문제에는 인사말을 제외하고 ‘-겠-’과 관련된 문항이 없는 듯하나 4급 문제에서는 몇 개가 확인되었다.

(23) 검정시험2: 26회/4급

㉘ ( )에 맞는 것을 ①~④ 중에서 하나 고르십시오.

4) A: 지금 도쿄에서 혼자 사세요?

B: 네, 부모님은 규슈에 계시거든요.

A: 그럼 ( 29 )

B: 그럼요.

① 부모님이 무척 보고 싶었어요.

② 부모님이 무척 보고 싶겠지요?

③ 부모님이 정말 보고 싶네요.

④ 부모님이 이걸 많이 보셨겠지요?

(23)에서 정답은 아니지만 “보셨겠지요”란 표현까지 나타나 있다. ‘-었겠-’은 TOPIK 문제에도 확인되었다(TOPIK: 7회/2급/어휘·문법20).

선어말어미 ‘-었-’과 관련한 문항 유형에 대해 한 가지 특징을 지적해 둔다. 다음 7.2절에서도 언급하겠지만 TOPIK에서는 시간적인 선후 관계를 묻는 문항이 매회 출제된다.

(24) TOPIK: 7회/1급/어휘·문법

[17~21] <보기>와 같이 ( )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17. 가: 보통 언제 운동해요?

나: 저는 아침에 운동을 ( ).

① 합니다 ② 했습니다 ③ 할 겁니다 ④ 해 보세요

이러한 유형의 문항은 검정시험에는 거의 출제되지 않았다. 검정시험에서 문말에 나타난 시제 형식을 묻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국어/일본어 번역을 통해 출제된다.

(25) 검정시험1: 25회/4급

㉚ 1)~5)를 번역한 문장으로 적절한 것을 ①~④ 중에서 하나 고르십시오.

2) 今年の夏はあまりにも長かったです.

① 올해 여름은 너무 짧았습니다.

② 올해 여름은 너무 길었습니다.

③ 올해 여름은 너무 길지 않았습니다.

④ 올해 여름은 너무 겁니다.

## 7.2 ‘分析的인 形式’에 관한 問項

다음은 ‘-고 있다, -고 싶다’ 등 용언의 ‘분석적인 형식’<sup>23)</sup>에 대해 살펴보겠다. 다양한 한국어 표현을 위해서는 두 개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분석적인 형식을 배우는 것이 중요한 학습 목표

23) 보조적인 단어를 포함한 두 개 이상의 단어로 구성된 문법적인 형식을 ‘분석적인 형식’이라고 한다. 간노[菅野裕臣]외(1988;1991:1018), 노마히데키(2002:30, 2006) 참조.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어 능력 평가에서도 초점이 될 터인데 TOPIK과 검정시험에서는 어떠한 형식으로 출제되는지 확인해 보고자 한다. 먼저 TOPIK 1급 문제에 나타난 분석적인 형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11> TOPIK 문제에 나타난 분석적인 형식과 검정시험과의 대응 양상

분석적인 형식	TOPIK	검정시험1	검정시험2
-고 싶다	1급	4급	5급
-고 있다	1급	4급	4급
-지 못하다	1급	4급	4급
-지 않다	1급	4급	4급
-어/아/여 주다	1급	3급	4급
-(으)려고 하다	1급	3급	4급
-(으)르 것이다	1급	3급	4급
-지 말다	1급	3급	4급
-어/아/여 보다	1급	3급	4급
-(으)르 수 있다	1급	3급	3급
-(으)르 수 없다	1급	3급	3급
-어/아/여도 되다	2급	3급	4급
-(으)면 되다	2급	3급	4급
-(으)면 안 되다	2급	3급	4급
-(으)르 때	2급	3급	4급
-어/아/여야 하다	2급	3급	4급
-어/아/여야 되다	2급	3급	4급
-는/(으)ㄴ/(으)르 것 같다	2급	3급	3급
-기 때문에	2급	3급	3급
-기 바라다	2급	없음	3급
-는 게 좋다	2급	없음	3급
-는 중이다	2급	준2급	3급
-(으)ㄴ 적이 있다	2급	준2급	3급
-(으)르 줄 알다 (능력)	2급	준2급	3급
-기 전에	2급	준2급	3급
-(으)ㄴ 지	2급	준2급	3급
-어/아/여서 그러다	2급	없음	3급
-게 하다	2급	준2급	3급
-(으)르까 하다	2급	준2급	3급

TOPIK에서 1급·2급에 다양한 형식이 나타나 있는 것은 이제 말할 필요도 없는데<sup>24)</sup> 여기서는 검정시험에 주목해 보고자 한다. <표11>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검정시험1에서는 5급에 분석적인

24) 고우리(2004:46)에서 경희대학교,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통어적 구문'을 정리한 바 있는데 그것과 일본에서 출판된 교재를 대조해 보면 그 차이가 확실하게 드러난다. 예를 들어 노마[野間秀樹](2000), 오고시[生越直樹]·曹喜澈(2000) 등에서 제시된 분석적인 형식은 고우리(2004:46)에서 제시된 항목 중 반 정도밖에 확인되지 않았다.

형식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검정시험1의 4급에도 <표11>에 나타난 ‘-고 싶다, -고 있다, -지 못하다, -지 않다’ 정도밖에 안 보이는데 3급에 와서 다양한 형식이 대폭 추가된다. 검정시험1은 초급을 세 단계로 나눔으로써 단계별 출제 항목도 다른 능력 평가보다 세분화되어 있다. 한편 검정시험2는 5급부터 ‘-고 싶다’가 출제될 뿐 아니라 4급에 포함되는 분석적인 형식이 많아졌다. 그리고 검정시험1에서 초급인 3급에 포함되었던 일부 항목이 검정시험2에서는 중급에 포함되게 되었다.

TOPIK 2급에 나타나는 분석적인 형식 중, 반 이상이 검정시험에서 중급에 해당된다는 것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분석적인 형식의 이러한 분포 차이만 보아도 두 능력 평가는 그 수준에 현저한 차이가 있으며 ‘초급’이라는 말로 함께 묶을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위에 제시한 분석적인 형식 중 ‘-고 있다’와 ‘-(으)려고 하다’, ‘-(으)ㄴ 것이다’ 등은 시간적인 선후 관계를 묻는 문항에서 빈번히 나타난다.

(26) TOPIK: 9회/1급/어휘·문법

[17~20] <보기>와 같이 ( )에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18. 가: 언제 회사에 가요?

나: 한 시간 후에 ( )

- ① 가지요? ② 갔어요. ③ 갈 거예요. ④ 가고 있어요.

이들 형식은 검정시험에서는 4급 이상의 수준에서 출제되므로 같은 초급이라 하더라도 그 수준에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 문항을 보면 다음과 같이 검정시험에서도 출제 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형식이 나타날 수도 있다.

(27) 검정시험1: 24회/3급

㉓ ( )에 맞는 것을 ①~④ 중에서 하나 고르십시오.

5) 새를 기르고 있( 15 ).

( います[있는 것 같아요] )

- ① 는 것이예요 ② 어야 해요 ③ 는 것 같아요 ④ 을까 해요

분석적인 형식 ‘-(으)ㄴ까 하다’는 <표11>에 제시한 바와 같이 검정시험1에서 준2급, 검정시험2에서는 3급에 배치된 항목이다. 여기서 “④을까 해요”는 정답이 아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출제 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을 문제 중에 제시하면 안 될 것이다.

다음으로 정답으로 제시된 경우를 살펴보자. TOPIK 문제를 보면 <표11>에 제시된 거의 모든 형식이 문항의 정답으로 나타난다. 다음과 같이 검정시험 준2급 수준의 형식도 출제된다.

(28) TOPIK: 8회/2급/쓰기

[45~48] <보기>와 같이 밑줄 친 부분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48. 가: 내년에 유학을 갈 계획이에요.

나: 그래요? 어디로 갈 거예요?

가: \_\_\_\_\_

- ① 중국에 가 보세요                      ② 중국으로 갈까 해요
- ③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④ 3년 동안 유학할 거예요

(29) TOPIK: 9회/2급/쓰기

[45~48] <보기>와 같이 밑줄 친 부분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45. 가: 이번에 갈 가족 여행 장소는 정했어요?

나: \_\_\_\_\_.

가: 잘 생각했어요. 가을 단풍이 정말 아름다울 거예요.

- ① 아직 생각하고 있어요              ② 설악산에 가기로 했어요
- ③ 좋은 장소를 모르겠어요            ④ 아름다운 단풍을 구경했어요

‘-어/아/여도 [안] 되다, -(으)면 되다, -었/았/였을 때, -어/아/여야 하다, -(으)ㄴ 것 같다’ 등은 TOPIK에서 거의 매회 출제된다. 문항의 양식은 검정시험1·2와 TOPIK에서 거의 비슷하다.

(30) TOPIK: 9회/2급/어휘·문법

[17~21] <보기>와 같이 ( )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17. 가: 지금 나가도 돼요?

나: 아니요, 지금 ( ).

- ① 나가도 돼요    ② 나가지 않아요    ③ 나갈 수 있어요    ④ 나가면 안 돼요

(31) 검정시험2: 26회/4급

7 ( )에 맞는 것을 ①~④ 중에서 하나 고르십시오.

2) A: 화장실 어디 있어요?

B: 저쪽으로 ( 23 ).

- ① 가시면 돼요                      ② 가셔도 돼요
- ③ 가시면 안 돼요                 ④ 가셔도 괜찮아요

여기까지 분석적인 형식과 관련된 문항 분포를 살펴보았다.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분석적인 형식에서는 TOPIK과 검정시험 사이에서 차이가 크다는 것이 확인된다. 이러한 결과로 보면 두 능력 평가에서 어떠한 항목을 초급에 포함시킬 것인지 기준에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7.3 用言 活用に 관한 問項

#### 7.3.1 正格活用に 관한 問項

한국어 학습에 있어 용언 활용의 습득이 중요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 절에서는 용언 활용에 대한 문항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정격 용언에 대한 문항인데 다음 예를 보자.

(32) 검정시험1: 24회/5급

5 ( )에 맞는 것을 ①~④ 중에서 하나 고르십시오.

7) 내일은 영화를 ( 33 ).

(明日は映画を見ます.)

- ① 뷔요    ② 봐요    ③ 보여요    ④ 보여요

여기서는 동사 '보다'의 활용에 대해 묻고 있다. 검정시험 5급에서는 용언의 정격활용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32)와 같은 문제가 출제된다. 한편 정격활용에 대한 이러한 문항은 TOPIK에서 출제되지 않는다. TOPIK에서는 다음 절에서 보듯이 변격활용에 대한 문항만 확인된다. 그러자 한국어 학습자에게는 오직 변격활용만이 중요한 사항이 아니다.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학습자에게는 "보다"란 형태도 아주 어려운 것이다. 이러한 기초적인 용언 활용형을 한문로 제대로 표기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항은 조금 단계에서 꼭 필요한 것이니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TOPIK에서는 아주 조금 단계의 학습자에 대한 배려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비모어화자인 학습자는 원래부터 그 용언이 정격활용인지 변격활용인지도 알 수 없다. 문제 작성자 자체가 이 점을 확실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 7.3.2 變格活用에 관한 問題

여기서는 용언 변격활용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3장의 <표3>에서 보았듯이 TOPIK에서 1급 평가 내용으로 'ㄹ', '르', '동사'가 설정되어 있고, 2급은 '르', 'ㄹ', 'ㄱ', '변격동사'가 설정되어 있다. 변격활용 출제에 관한 각 능력 평가의 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25)

<표12> 변격활용에 관한 TOPIK과 검정시험의 출제 기준

활용	TOPIK	검정시험1	검정시험2
'ㄹ'동사	1급	5급	5급
'르'동사	1급	4급 ('안다'만 5급)	5급
'으'동사	1급	4급	4급[5급]
'ㅁ'변격활용	1급	3급	4급[5급]
'ㄷ'변격활용	2급	3급	4급
'르'변격활용	2급	3급 ('포르다'만 5급)	4급
'ㄹ'변격활용	2급	3급	4급
'으'변격활용(26)	2급	3급	3급
'ㄹ'변격활용	없음	3급	3급
'우'변격활용(푸다)	없음	3급	2급

문제로 출제된 문항은 다음과 같다.

(33) TOPIK: 8회/1급/어휘·문법

30. ㉠ (쓰다) 를 알맞게 고쳐 쓰시오. [ "그림, 한번 ㉠ (쓰다) 보시오."란 문장에서 ]

(34) TOPIK: 9회/2급/어휘·문법

25) 검정시험2 출제 기준을 보면 '으'동사와 'ㅁ'변격활용은 5급에서 문체에 나타나지 않으나 활용에 대한 지식은 묻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표에서는 "[5급]"처럼 [ ] 안에 넣어 표시하였다.

26) '으'변격동사 중 '그렇다, 어렵다, 이렇다'의 활용형 '그래요, 어때요'에 대해서는 두 능력 평가에서 예외적으로 다루고 있다. 검정시험1.2 모두 '우'변격활용은 3급 기준에 포함되지만 검정시험1에서는 '그래요, 어때요'만 4급에 배치되었고, 검정시험2에서는 '어때요'는 5급, '그래요'는 4급에 배치되었다. TOPIK 1급에서는 '그래요, 어때요'만 나타났고, 2급에서도 "까만색, 파란색" 등 복합어의 구성요소로만 나타났다. 이 표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TOPIK은 2급, 검정시험1.2에서는 3급에 나타나는 것으로 처리하였다.



[22~24] <보기>와 같이 밑줄 친 부분이 틀린 것을 고르십시오.

- 22. ① 가방이 아주 가벼워요.
- ② 저는 서울에서 살아요.
- ③ 어제는 배가 아프었어요.
- ④ 동생하고 저는 성격이 달라요.

(35) 검정시험2: 26회/4급

- ㉠ ( )에 맞는 것을 ①~④ 중에서 하나 고르십시오.
- 2) 아픈 건 다 ( 20 )?
- ① 낳았어요 ② 나셨어요 ③ 나왔어요 ④ 낫았어요

‘르’동사에 관한 다음과 같은 문항은 TOPIK과 검정시험에서 거의 일치되는 형식이다.

(36) 검정시험2: 26회/5급

- ㉠ 활용형으로 맞는 것을 ①~④ 중에서 하나 고르십시오.
- 2) 지금 무엇을 ( 25 )?
- ① 만드려요 ② 만드요 ③ 만들습니까 ④ 만듭니까

(37) TOPIK: 8회/1급/어휘·문법

- [22~24] <보기>와 같이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십시오.
- 24. 저는 서울에서 ( ).
- ① 살아요 ② 삽니다 ③ 살습니다 ④ 살고 있어요

위의 예들은 모두 각 능력 평가의 기준에 맞게 출제된 문항이다. 한편 TOPIK 1급 문제에는 “달라요, 들어요(<듣다>)” 등 평가 내용에 없는 변격동사가 나타나 있다. 이들은 보기에 나타나거나 다음과 같이 의미 파악에 초점이 있는 문항에 나타난다.

(38) TOPIK: 7회/1급/어휘·문법

- [4~6] <보기>와 같이 ( )에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 4. 가: 지금 날씨가 좋아요?
- 나: 아니요, 날씨가 ( ). 비가 와요.
- ① 나빠요 ② 달라요 ③ 비싸요 ④ 조용해요

TOPIK 1급 문제에 나타나는 용언을 보면 출제 기준에 포함된 ‘르’동사, ‘으’동사, ‘ㅂ’변격동사 이외에 ‘ㄷ’변격동사, ‘르’변격동사까지 확인된다. 검정시험1의 5급에서는 ‘여’변격활용과 “알다/모르다”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변격동사가 문제에 나타나지 않는 것과 대조적인 분포라고 할 수 있다.

## 8. 談話的 觀點에서의 分析

### 8.1 對話文에 나타난 ‘機能 遂行’

여기서는 각 능력 평가 출제 기준에 설정된 ‘기능 수행’이 문항에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는지 검토해 보고자 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검정시험1·2에서는 기능 수행을 목표로 하는 문제가 거의 출제되지 않는다. TOPIK에서는 기능 수행에 관한 문항이 나타나지만 본고에서 대상으로 하지 않은 “읽기” 문제에 그러한 문항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검정시험1에서는 3급 출제 기준에 “호텔에서 예약하기, 우체국에서 편지를 보내기, 전철역 등의 창구에서 용건을 이야기하기 등의 간단한 회화를 할 수 있다”는 목표가 설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목표와 관련된 문항은 거의 없다. 일본어의 문장 “重い荷物も送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무거운 짐도 보내야 합니다]”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문항(검정시험1: 24회/3급 [7]-4)은 있으나 이 문항에서는 ‘무겁다’와 ‘짐’의 의미 파악에 초점이 있다.

검정시험2는 5급부터 이러한 기능 수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항은 없다. 검정시험2의 4급 출제 기준에 보이는 “메모나 영수증과 같은 실용적인 문장, 영화 티켓 등”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5급 문제에 구두를 사는 장면을 주제로 한 대화문이 나타난다. 대화 부분만 인용한다.

(39) 검정시험2: 26회/5급

[13] 대화문을 읽고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A: 이 구두가 얼마예요?

B: 사만 원입니다.

A: 저 구두는요?

B: 더 비싸요. ( 40 )입니다.

A: 그 구두도 같아요?

B: 이것은 제일 싸입니다. [문제와 선택지는 생략]

이 문제는 “물건 사기”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데 관련된 표현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물건을 산다는 목표가 설정된 등급은 이 문제가 나타난 5급이 아니라 4급이다.

다음으로 TOPIK 문제를 검토해 보자.

(40) TOPIK: 8회/2급/쓰기

[55~56] 다음 글을 읽고 ( )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가: 여보세요? 거기 문화대학교 사무실입니까?

나: 네, 그렇습니다.

가: 실례지만, ( ㉠ )?

나: 지금 안 계십니다. 회의 중이십니다.

가: ( ㉡ )?

나: 한 시간 후에 오실 거예요.

가: 그 때 다시 전화 드리겠습니다.

55. ( ㉠ )?

① 김 선생님은 회의 중입니까 ② 김 선생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③ 김 선생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④ 김 선생님 좀 바꿔 주시겠습니까

56. ( ㉡ )?

① 언제쯤 들어오시지요

② 한 시쯤 들어오실 거예요

③ 한 시간 후에 전화할까요

④ 한 시간 후에 어디에 가세요

이 문항에는 “실례지만”이나 “바꿔 주시겠습니까?” 등 통화할 때 자주 쓰이는 표현들이 나타나 있다. 이러한 표현들은 “전화하기”란 기능 수행에 필요한 것이다. 또한 본고에서는 연구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지만 TOPIK 문제 중 이해 영역(듣기, 읽기)에서는 간판이나 청구서 등 “실용문”이 제시되고 그것에 관한 문제가 출제된다.

그런데 여기서 ‘기능 수행’이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 다시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이다. 주어진 상황에서 필요한 어휘나 문법 항목만을 포함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상황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을 가리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또한 언어를 사용하여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은 아주 다양한데 초급 단계에서 필요한 기능은 무엇인지 다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 8.2 對話文에서의 文脈

두 능력 시험에서 공통적으로 출제되는 문항 양식으로 ‘대화 완성’을 들 수 있다. 먼저 질문이 제시되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선택하거나 몇 개 문장으로 구성된 대화문에서 맞는 문장을 고르는 등 다양한 문항이 출제된다.

(41) TOPIK: 7회/1급/쓰기

[36~40] <보기>와 같이 밑줄 친 부분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37. 가: \_\_\_\_\_?

나: 수요일이에요.

- |            |             |
|------------|-------------|
| ① 지금 뭐예요   | ② 여기가 어디예요  |
| ③ 무슨 요일이에요 | ④ 몇 월 며칠이에요 |

(42) 검정시험1: 25회/5급

㉠ 대화문으로 적절한 것을 ①~④ 중에서 하나 고르십시오.

1) A: 무슨 책을 읽습니까?

B: ( 37 ).

- |            |                |
|------------|----------------|
| ① 교과서예요    | ② 도서관에서 읽습니다   |
| ③ 숙제가 있습니다 | ④ 아뇨, 텔레비전을 봐요 |

이와 같은 ‘대화 완성’ 문항은 매회 반드시 출제되는 것인데 특히 TOPIK에서는 ‘쓰기’ 영역의 중심을 이루는 중요한 문항 유형이다. 그러나 대화문 자체는 이러한 “대화 완성하기”에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4장에서도 언급하였듯이 TOPIK에서는 어휘 의미 파악 등 다른 문항도 대화문을 통해 출제된다.

그럼 그러한 대화문 중에서 다음 문항을 검토해 보자.

(43) TOPIK: 8회/1급/쓰기

[31~35] <보기>와 같이 밑줄 친 부분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34. 가: 제가 전화를 할까요?

나: \_\_\_\_\_.

- |               |                 |
|---------------|-----------------|
| ① 네, 전화를 하세요  | ② 네, 전화가 없어요    |
| ③ 내일 전화를 하겠어요 | ④ 사무실에서 전화를 했어요 |

이 문항에서 정답은 무엇일까? 공개된 정답표에 의하면 정답은 ①의 “네, 전화를 하세요”이다. 그러나 다른 선택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②는 “네, [상대방에서 아직] 전화가 없어요.” 정도로 파악하면 이 대화는 성립할 수 있을 것이다. ③도 마찬가지로 [당신이 안 해도] 내일 [내가] 전화를 하겠어요.”와 같은 상황을 생각하면 충분히 가능하. ④는 어떤가. [이미] [사무실에서]=[사무실 사람] 전화를 했어요.”란 의미로는 아무런 문제없이 대답이 될 수 있다. 결국 적당한 상황만 주어지면 이 문항은 모든 선택지가 정답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항은 TOPIK에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다음은 검정시험1의 3문에 나타난 문항이다.

(44) 검정시험1: 25회/3문

[ ] 대화문의 ( ) 안에 맞는 것을 ①~④ 중에서 하나 고르십시오.

5) A: 여보세요. 성민이 오빠예요?

B: 네, 누구예요?

A: 미순이에요. ( 20 ) ?

B: 음 바쁜데.

① 어제는 바빴어요 ② 지금 시간 있으세요

③ 전화 걸었어요 ④ 오빠, 참 있어요

정답은 ②로 되어 있다. 그러나 ④도 정답이 될 가능성이 있다. A가 매우 반가워하면서 “오빠, 참 있어요?”라고 말했는데 B는 귀찮은 듯이 “음 바쁜데.”란 말을 했다. 이 정도의 상황을 생각하면 ④도 이 대화에 맞는 문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복수 선택지가 정답이 될 수 있다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들 대화문에 적절한 문항27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시험 문체에 나타난 대화문이라 하더라도 하나의 단 화로서 존재하는 이상, 반드시 어떠한 문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즉, 이들 문항에는 문맥이라는 개념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趙義成(2005:254)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이들 문항의 정답은 문제 작성자가 상정한 문맥에서 “정답”이 될 수 있는 것이며 사실 그 “문맥”도 문제 작성자가 “인 반적”인 것으로 생각하여 주관적으로 설정한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문맥”도 그 대화에서 염두에 지 상정할 수 있는 문맥 중의 하나에 불과하다. 짧은 대화에서도 그 문맥을 알 수 있도록 대화문을 조절하거나 어떤 문맥으로도 하나만 정답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만들 필요가 있다.

담화에 대한 이러한 관점의 결여는 단지 문제 작성에 있어서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결국 실제 언어 사용에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언어 사용에서 문장은 그 각자 하나씩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각각의 문장은 담화의 일부로서 어떠한 문맥 속에 존재한다. 두 문맥 평가의 문항을 보는 한, 검정시험과 TOPIK 모두 이 사실에 대해 무관심한 것으로 보인다. 언어 능력은 평가한다고 할 때, 그 언어 능력은 어디까지나 실제 언어 사용 형태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평가 문항에도 실제 언어가 보여 주는 양상을 반영시켜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등급이 세분화되어 있는 검정시험1을 기준으로 하였다. 이 표에서 TOPIK 문제가 검정시험보다 더 넓은 출제 범위를 가지고 있음은 알 수 있다. TOPIK 1급 문제는 검정시험1의 5급과 4급, 그리고 3급의 일부까지, 검정시험2의 5급과 4급의 일부까지 포함한다. TOPIK 2급은 검정시험 4급과 3급, 2급의 일부까지 포함하며 검정시험2의 4급과 3급의 일부까지 포함한다. 한마디로 같은 '등급'이라 하더라도 TOPIK이 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담화의 관점에서도 문항을 검토해 보았다. TOPIK과 검정시험 모두 "호텔에서 예약하기, 우체국에서 편지 보내기"와 같은 기능 수행에 관한 목표가 설정되어 있다. 문고에서는 그러한 기능이 실제 문항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또한 "대화문 완성하기"와 같은

난이도	↑ ↓	↑ ↓	↑ ↓
등급	↑ ↓	↑ ↓	↑ ↓
TOPIK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검정시험1	3급 4급 5급	3급 4급 5급	3급 4급 5급
검정시험2	4급 5급	4급 5급	4급 5급

<그림1> 문법형식의 분포를 정리한 TOPIK과 검정시험의 대응 양상

관피보았다.

받음에 관한 문항은 TOPIK에는 안 보이고 검정시험1.2에만 나타난다. 한국과 일본에서 출판된 한국어 교재를 비교해 보면 받음과 관련된 기종에 명확한 차이가 보인다. 일본에서 출판된 교재에서는 받음 변화를 규칙으로서, 지식으로서 정리하여 지도하려고 하는 데 비해 한국에서 출판된 교재들은 그러한 기종이 거의 없다. 받음 교육에 대한 입장 차이가 교재, 능력 평가에 여실하게 나타나 있음은 알 수 있다.

어휘에 관해서 인사말에 관한 문항, 한자에 관한 문항, 한자에 관한 문항을 살펴보면 이틀 문항 역시 TOPIK에는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특히 한자와 한자음에 관한 인식 자체가 TOPIK과 검정시험에서 다르다. 한국어와 일본어의 어휘 체계를 생각할 때, 일본어 모어화자에 대한 한국 한자음, 한자어 표음은 당연히 중요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특정 모어화자를 응시 대상으로 하지 않는 TOPIK과 일본어 모어화자를 주요 응시자로 보는 검정시험 사이의 특징적인 차이로 할 수 있다.

무제에 나타난 문법 형태들은 TOPIK과 검정시험1, 그리고 검정시험2 사이에서 서로 다른 결과를 보였는데 그 양상은 다음 <그림1>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9.1 TOPIK과 檢定試驗-어떻게 다른가?

9. 結論

은 유형의 문항에서 문맥에 대한 고려가 거의 없음을 지적하였다. 실제 언어 사용을 생각할 때, 모든 문장은 일정한 문맥 속에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시험 TOPIK과 검정시험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당연하다고 볼 수 도 있다. 중요한 것은 서로가 어떻게 대응되는 것인지 정확히 파악하여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 어 교육에 적용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 9.2 問項에 나타난 對照言語學的인 觀點

문고에서 몇 번 언급을 하였는데 검정시험은 일본어 모어화자를 응시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란하자면 일본어 모어화자를 위한 한국어 능력 평가이다. 그러한 성격은 형식적인 면에서도 확인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검정시험은 문제 지시문이 일본어로 기술되어 있다.28) 한편 TOPIK은 모든 문제가 한국어로 지시된다. 검정시험이 일본어 모어화자를 위한 시험이라는 것은 개별 문항에서도 확인된다. 검정시험1에 서 다음 문항을 보자.

(45) 검정시험1: 24회/3문

3) ( ) 에 알맞은 것을 ①~④ 중에서 하나 고르시오.  
1) 관공여행(11) 계획이다.  
( ) 爲[ -를/를 위한 ]

① 에 위한 ② 에 위해 ③ 를 위한 ④ 의 위해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④ 의 위해"란 항목이 틀어 있다는 것이다. 일본어는 " ~의 위해" 와 같이 조사, '의', '-의'에 해당됨)가 나타나지만 해당되는 한국어 표현은 조사로 "-를/를"이 요 구된다. 일본어를 직역하면 정답을 얻을 수가 없는 문항이다. 또한 검정시험1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시된 한국어/일본어를 적절하게 번역한 문장을 고르는 문 항도 출제되었다.

(46) 검정시험1: 24회/4문

7) 1)~5)를 번역한 문장으로 적절한 것을 ①~④ 중에서 하나 고르시오.  
3) 肉とたまごがおいしいな子.  
① 고기하고 달콤 씹어하는 아이.  
② 고기와 계란을 씹어하는 아이.  
③ 고기하고 계란이 씹어하는 아이.  
④ 고기와 달콤 씹어한 아이.

이 문항에서는 단어, 계단과, -를/를 씹어하다'란 표현이 조립이 되고 있다. 일본어 표현은, ~가 좋아[ -를/를 씹어하다]'와 같이 조사로서, '~가'가 요구되는 데 비해 해당되는 한국어 표현 은, '-를/를'이 요구된다. 이를 문항과 같이 검정시험1에서는 일본어와 한국어 사이에서 유사하지 만 조금씩 차이를 보이는 표현들이 출제된다. 이러한 사실은 결국 응시 대상자의 포어를 고려한 대조언어학적인 관점의 유무를 보여주는 것

이다.<sup>29)</sup> 한국어와 일본어 사이에 나타나는 유사점 때문에 일본어 모어화자가 범하기 쉬운 오류들이 존재한다. 그러한 오류의 대부분은 일본어와 관련성이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孫禎慧(2005)에서 ‘하고’형과 ‘해서’형에 대해 일본어 모어화자의 오류를 유형별로 정리하여 검토한 바가 있는데 학습자들이 범한 오류에 모어와의 관련이 반영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검정시험은 주로 일본어 모어화자를 응시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모어의 영향으로 인한 오류에 대해 학습자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대조적인 관점이 문제에 도입되어 있는 것이라 하겠다.

한편 TOPIK은 세계 각국에서 행해지고 있고 또 그 응시 대상자의 모어도 다양하다. 그러므로 특정 언어와의 대조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작성하는 것은 어렵거나 불가능할 것이다. 또한 검정시험2는 검정시험1과 마찬가지로 주요 응시 대상으로 일본어 모어화자를 상정하고 있는데(도우미 7~8쪽) 초급 문제에서 일본어를 거의 다 빼 버렸다.

(47) 검정시험2: 26회/5급

㉠ ( )에 알맞은 것을 ①~④ 중에서 하나 고르십시오.

5) A: 누구( 30 ) 만나요?

B: 친구요.

① 에 ② 에게 ③ 과 ④ 를

이 문항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일본어가 없다 하더라도 대조적인 관점은 확인할 수 있다. 동사 ‘만나다’가 요구하는 조사가 한국어와 일본어에서 다르다는 것을 묻는 문항으로 문제 자체는 7.1.1절의 (10)과 동일하다. 그러나 대응되는 일본어가 없으면 단순히 ‘-를/을 만나다’라는 표현을 묻는 문제가 되어 버려 학습자가 자기의 모어와 대조함으로써 생각하는 열쇠가 없어지게 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항은 TOPIK과 거의 비슷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TOPIK은 자기 모어를 떠나서 한국어에 대한 지식만을 묻는 시험이기 때문이다.

언어 학습에 있어 모어가 담당하는 역할은 매우 크다. 학습자가 자기의 모어에 대한 지식을 활용함으로써 더 효율적으로 외국어를 배울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 점에서 언어 능력 평가에서도 대조언어학적인 관점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수험자가 자기의 모어와 대조하면서 생각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검정시험2는 그러한 기회 하나를 없애 버린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9.3 TOPIK과 檢定試驗-무엇이 問題인가?

이러한 차이를 보이는 TOPIK과 검정시험은 어떠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가?

먼저 실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학점 인정에 따른 문제가 생긴다. 2장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일본 국내 대학 중에는 능력 평가에 응시하여 합격한 학생에게 일정한 학점을 인정해 주는 학교가 있다. 두 능력 평가를 대상으로 학점을 인정할 경우 레벨 차이가 큰데 똑같이 학점을 인정해도 될 것인지 의심스럽다. TOPIK과 검정시험과의 대응 양상을 파악해야 어느 급에서 얼마나 학점을 인정해 줄 것인지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예를 들어 일본에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검정시험에

29) 이희경(2005:492)에서도 검정시험에 보이는 대조언어학적인 측면이 지적된 바 있다.

응시한 학생이 한국으로 유학할 경우 그 학생의 한국어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할 수도 있다.

그리고 TOPIK과 검정시험 사이의 과도한 난이도 차이도 문제가 된다. TOPIK은 그 난이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9.1절의 <그림1>에서 제시한 문법 항목의 대응 양상을 보면 TOPIK 1급은 검정시험1의 세 개 레벨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초급’ 개념의 차이가 반영된 것이다.

‘초급’ 수준을 생각할 때, 한국어 모어화자의 입장에서 본 ‘초급’이 아닌 비모어로서의 ‘초급’을 상정할 필요가 있다. 한국어를 비모어로서 배우는 사람들에 있어 어느 단계에서 어떠한 항목이 필요한가. 아주 다양한 어미와 표현을 배워야 ‘초급’이라 할 수 있는 것인가. 또 학습자가 한국어를 배우는 환경도 많이 다르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 선택과목으로 한국어를 배울 경우, 일주일에 한 번, 90분 수업을 30주 동안 듣게 된다. 이것은 한국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와 환경이 결정적으로 다르다. 한국에서 학습자들은 365일 24시간 동안, 교실을 떠나서라도 한국어를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와 일본을 비롯한 외국에서 배우는 학습자 사이에는 당연히 학습 분량에 있어 차이가 생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TOPIK 초급 문제는 그 평가 항목을 다시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언어 능력 평가는 단지 학습자의 실력을 확인하는 도구가 아니다. 수험자들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지침으로서의 역할도 가지고 있다. 특히 초급 단계 시험은 쉽게 문제를 풀어 시험 합격을 유도함으로써 한국어에 대한 자신감과 한국어 학습에 대한 동기를 부여해 주는 역할도 기대가 된다. 즉 언어 능력 평가란 학습자가 포기하지 않고 다음 단계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사회적 역할도 담당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본고에서는 하나의 시도로 그쳤으나 언어 능력 평가의 분석은 문제에 나타난 항목만을 표면적으로 대조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지탱하는 언어관, 한국어 교육 현장까지 고려하여 검토되어야 한다. 하나의 단어가 실제로 사용되는 그 문맥까지를 토대로 하여 문항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論文·單行本>

- 간노[菅野裕臣]의(1988:1991), コスモス朝和辞典 第2版, 東京: 白水社.
- 강은아(2002), 한국어능력시험 초급단계의 어휘·문법 영역 문항 연구,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우리(2004), 한국어 어휘·문법 숙달도 평가 방안 연구: 한국어능력시험 1, 2급 문항 분석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국제문화포럼(2005), 일본의 학교에서의 한국어교육: 대학 등과 고등학교의 현 상황과 과제, 동경: 재단법인 국제문화포럼.
- 김광해(2002), 한국에서의 한국어 평가: 한국어 능력 시험(KPT: Korean Proficiency Test), 국어교육연구 제10집, 403-448, 서울: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 김왕규·김정숙·조향록·정구향·조지민·김수정(2001), 한국어능력시험의 평가기준 개발 연구,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김유정(2005), 한국의 한국어 능력 평가: ‘한국어 능력 시험’을 중심으로, 한국어교육론1, 419-435, 서울: 한국문화사.
- 김정숙·최은규·김유정(2005a), 한국어능력시험의 개선 방안 연구(I): 등급 부여 방식을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제16권 제1호, 77-97, 서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김정숙·최은규·김유정(2005b), 한국어능력시험의 개선 방안 연구(II): 평가 문항 유형을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 제16권 제2호, 91-107, 서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김혜진(2005), 일본의 한국어 능력 평가: ハングル(한글)能力檢定試験에 대하여, 한국어교육론1, 463-479, 서울: 한국문화사.
- 노마히데키(2002), 한국어 어휘와 문법의 상관구조, 서울: 태학사.
- 노마히데키(2006), 현대한국어 용언의 분석적인 형태에 대하여, *Whither Morphology in the New Millenium?* (21세기, 형태론 어디로 가는가), 297-318, 서울: 박이정.
- 노마[野間秀樹](2005), ハングル檢定 その背景と展望, 第9回 外国語教育学会シンポジウム(2005年11月6日, 東京外国語大学) 発表要旨, 東京: 外国語教育學會.
- 민병곤(2005), 한국어능력시험의 운영 현황 및 과제, 한국어교육 제16권 제3호, 137-162, 서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백봉자(1999),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 사전,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 孫禎慧(2005), 日本語を母語とする韓国語学習者の誤用分析: 해서形と하고形を中心に, 朝鮮學報 第195輯, 1-63, 天理: 朝鮮學會.
- Yutani, Yukitoshi(2002), 일본에서의 한국어 교육 평가론, 국어교육연구 제10집, 291-319, 서울: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 이토[伊藤英人](2005), 韓國漢字音教育法, 2005年度韓國語教師研修會講義要旨, 126-150, 東京: 財團法人國際文化フォーラム.
- 이희경(2005), 한글능력검정시험과 한국어능력시험의 비교 분석: 초급 단계를 중심으로,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제15차 국제학술대회 발표요지집, 481-495, 서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趙義成(2005), 評価の方法, テスト論, 2005年度韓國語教師研修會講義要旨, 251-264, 東京: 財團法人國際文化フォーラム.
- 최은규(2005), 평가의 연구사와 변천사, 국어교육론1, 369-398, 서울: 한국문화사.
-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6), 제10회 한국어능력시험 안내,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한글능력검정협회[ハングル能力檢定協會](2006), 「ハングル」檢定公式ガイド 合格도우미(トウミ): 合格レベルと語彙リスト 初中級編, 東京: ハングル能力檢定協會.
- 한글능력시험출제기준검토위원회[ハングル能力檢定試験出題基準検討委員會](2002), ハングル學習の手引き, 東京: ハングル能力檢定協會.

#### <韓國語 教材>

- 간노[菅野裕臣](1981), 朝鮮語の入門, 東京: 白水社.
- 權在淑(1995), 表現がひろがるこれからの朝鮮語, 東京: 三修社.
- 김중섭·조현용·방성원·홍윤기·호정은(2000), 한국어: 초급I,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국.
- 김중섭·조현용·방성원·홍윤기·호정은(2001), 한국어: 초급II,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국.
- 노마[野間秀樹](2000), 至福の朝鮮語, 東京: 朝日出版社..
- 노마[野間秀樹]·金珍娥(2005), NHKテレビ 안녕하세요! ハングル講座 4月號, 東京: 日本放送出版協會.
- 노마[野間秀樹]·무라타[村田寬]·金珍娥(2004), おち韓国語, 東京: 朝日出版社.
-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2000), 한국어1, 서울: 문진미디어.
-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편(1992), 한국어1,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 오고시[生越直樹]·曹喜澈(2000), ことばの架け橋, 東京: 白帝社.
- 유타니[油谷幸利]·高榮珍(2005), 實用韓国語, 東京: 白水社.
-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1998), 말이 트이는 한국어I: Student Book,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하세가와[長谷川由起子](2004), コミュニケーション韓国語: 読んで書こう1, 東京: 白帝社.
- 한국어문화연수부 편(2003), 한국어1, 서울: 고대민족문화연구원.

#### <能力 評價 問題紙>

- 韓國語能力試驗 1·2級過去問題集 第7回+第8回. 財團法人韓國教育財團編, 東京: 三修社, 2006년.  
제9회 한국어능력시험 문제지(1급, 2급).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웹사이트에서 다운받을 수 있음).

2005年度春季 第24回 「ハングル」 能力検定試験 <3級·4級·5級>問題と正答. ハングル能力検定協会編, 東京: ハングル能力検定協会, 2005년.

2006年度秋季 第25回 「ハングル」 能力検定試験 <3級·4級·5級>問題と正答. ハングル能力検定協会編, 東京: ハングル能力検定協会, 2006년.

2006年度春季 第26回 「ハングル」 能力検定試験 문제지(5급, 4급).

<웹사이트>

한국어능력시험(TOPIK): <http://topik.or.kr/>

ハングル能力検定協会: <http://www.hangul.or.jp/>

스가이 요시노리(須賀井 義教)

東京外國語大學

Tokyo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3-11-1 Asahi-cho, Fuchu-shi,

Tokyo, 183-8534 JAPAN

전자우편: wigyo@hotmail.com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제16차 국제학술대회  
**한국어 교수 - 학습 방법론의 재정립**

---

2006년 7월 24일 인쇄  
2006년 7월 31일 발행

---

발행인 조 항 록  
발행처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전화/전송: 0502-210-5500  
홈페이지: [www.iakle.com](http://www.iakle.com)

---

제 작 **한국문화사**  
서울시 성동구 성수1가2동 656-1683  
전화: (02) 464-7708, 3409-4488  
전송: (02) 499-0846  
전자우편: [hkm77@korea.com](mailto:hkm77@korea.com)  
홈페이지: [www.hankookmunhwasa.co.kr](http://www.hankookmunhwasa.co.kr)  
등 록 제2-1276호

---

[비매품]

# 한국어 교수 - 학습 방법론의 재정립

Reestablishment of Korean Teaching & Learning Methodology

**|장소|** 성균관대학교 600주년 기념관

Location : Six hundredth-anniversary building,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Korea

**|일시|** 2006년 8월 5일(토)~6일(일),  
09:00~18:00

Date and Time : 09:00~18:00 August 5-6, 2006, Saturday and Sunday

**|주최|** 국제한국어교육학회

Organized by :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Korean Language Education

**|주관|**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Organized by :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Korean Language Education  
The Academy of East Asian Studies, Sungkyunkwan University

**|후원|** 문화관광부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학술진흥재단

국립국어원

Sponsored by : Ministry of Culture & Tourism, Korea  
The Korea Foundation  
Korea Research Foundation  
The National Academy of the Korean Language



## 8월 5일 (토요일)

	(제1분과)	(제2분과)	(제3분과)	(제4분과)
	사회: 진기호 (한국외대)	사회: 문금현 (숙명여대)	사회: 김승환 (충북대)	사회: 김중철 (서울대)
14:40-15:30	<b>주제발표 I</b> 한국어 교수-학습을 위한 대조언어학적 접근1. -한국어와 영어	<b>주제발표 II</b> 한국어 교수-학습을 위한 대조언어학적 접근2. -한국어와 일본어	<b>주제발표 III</b> 한국어 교수-학습을 위한 대조언어학적 접근3. -한국어와 중국어	<b>주제발표 IV</b> 한국어 교수-학습을 위 한 대조언어학적 접근 4. -한국어와 베트남어
	발표: Nam-Kil Kim (미국 USC) 토론: Hyunkyu Yi (미국 Columbia Univ.)	발표: Noma Hideki (일본 東京外大) 토론: Jwa Mihwaja (일본 佐野工高)	발표: Yu-Zi Cai (중국 Fudan Univ.) 토론: Piao Wen-Zi (중국 Central Univ. of Nationalities)	발표: Myeong Sook Cho (베트남 Vietnam National Univ. of Hochimin) 토론: 윤경원 (한국외대)
15:30-16:10	Acceptability of some Korean lexical items judged by Korean L1 and L2 speakers Seong-Chul Shin (호주 Univ. of New South Wales)	일본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경어법 교육 연구-중급 단계 의 말하기 영역을 중심으로- 나카가와 마사오미 (이화여대)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유의적 문법 요소 연구 박숙자 (중국 대외경제무역대)	한국어 학습자의 쓰기 텍스트에 대한 대조 수사학적 연구 진대연, 김민애, 이수미, 홍은실 (서울대)
16:10-16:20	휴식			
	사회: 김현진 (이화여대)	사회: 김제열 (연세대)	사회: 김성희 (서강대)	사회: 정대현 (건국대)
16:20-17:00	Issues in Teaching Korean as a Heritage Language Angela Lee-Smith (미국 Yale Univ.)	'다니까', '다면서' 등에 대하여-일본어와 의 대조언어학적 관점 에서- 이광휘 (일본 동경대)	중국 동북3성의 우리 민족 학교의 (조선어 문) 교과 연구 허재영 (건국대)	한국어 교육과 통역 Gwon-Jin Choi (불가리아 Sofia Univ.)
17:00-17:40	Input Elaboration of Korean Texts Dong Jae Lee, Jinhwa Lee, Dongkwan Kong, and Sun Hee Park (미국 Univ. of Hawaii)	"한국어능력시험" 과 일본 "(한글)능력검 정시험" 초급 문제에 대한 비교 연구 Sugai, Yoshinori (일본 東京外大)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 연구 현황 김석기 (중국 연변과기대)	효과적인 교수법에 대 한 재고-일본지역 교사 와 학습자를 대상으로- 오승은 (서강대)
18:00-20:00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장 주최 만찬			

# Program 2

8월 6일 (일요일)

09:30-10:20	주제특강 III 한국어 쓰기 기능 교수-학습 방법 -재 뉴질랜드 소년기 한국 아동들의 한국어 맞춤법 지도 방안- 발표: Inshil Choe Yoon (뉴질랜드 Univ. of Auckland) 토론: Kim, Young Gon (캐나다 Univ. of Toronto), 안경화 (서울대)	사회: 이관규(고려대)
10:20-10:30	휴식	
10:30-12:00	주제토론 효과적인 한국어 교수-학습 방법의 실제 좌장: 최은규 (서울대) 토론: 김정숙 (고려대), 이미혜 (이화여대), 황인교 (연세대), Naoki Ogosh (일본 The Univ. of Tokyo)	
12:00-13:00	점심	
13:00-13:50	주제특강 IV 한국어 교수-학습을 위한 사회언어학적 접근 발표: 김하수 (연세대) 토론: Ito, Hideto (일본 東京外大), 김세중 (국립국어원)	사회: 서혁 (이화여대)
13:50-14:40	주제특강 V 한국어 교수-학습을 위한 교육공학적 접근 - CMC와 웹기반 학습저작도구 활용 방안 발표: 한종임 (이화여대) 토론: 김석기 (중국 연변과기대), 이지영 (상명대)	사회: 나찬연 (경성대)
14:40-15:00	휴식	